

코스피 5642.21 (+88.29)	코스닥 1159.55 (+38.11)
금리 (연이자율) 3.558 (+0.035)	환율 (원/달러) 1502.45 (+7.25)

산업부
“3~5년간
LNG 수급 차질 없어”
03



후 대통령,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 격려사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靑, 중동상황 관리 ‘비상경제상황실’ 가동

비서실장 중심으로 운영
안보실장·정책실장, 부실장 맡아
총리 본부장 ‘비상경제본부’ 운영

청와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외 경제상황의 엄중한 관리를 위해 25일 ‘비상경제상황실’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는 또 이와 별도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가동한다.

홍익표 정부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언론설명회 갖고,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 구성 및 운영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번 조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비상대응 체계의 선제적 가동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비상경제상황실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의 산하에 설치되며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안보실

장과 정책실장이 부실장을 맡고, 정무수석이 총괄간사, 국정상황실장이 실무간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상황실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와 협력해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또 상황실 아래에 거시경제 물가대응반과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과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 등 5개 실무대응반을 운영한다. 각 대응반장은 청와대 수석급이 맡아 부처 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정부 실무대응반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동 위기 상황에 따라 ‘비상경제 대응체계’로 선제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컨트롤타워로 삼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가동해 범부처가 원팀 대응으로 뒷받침한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동전쟁이 3주 넘게 지속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 등 중동발 경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우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최고컨트롤타워로 해서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가 본부장인 ‘비상경제본부’는 “기존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하면서 확대 개편하는 것”이라며 “경제부총리는 본부장으로 실무대응반을 총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비상경제본부’ 회의는 중동상황 전개에 따라 개최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당분간 주 2회 개최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



metro

피지컬 AI 본격화... 개인, 삼전·하이닉스 ‘집중매수’

개인투자자, 이달 총 15조 사들여
KB증권 “삼성, 웨이퍼 내년까지 완판
타이트 수급환경 3년간 지속될 것”

3월 한 달간 코스피 지수가 급등락하는 가운데서도 동학개미(개인 투자자)들은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중동 전쟁의 여파로 미국 달러화를 제외하고 주요국 통화 가치가 대부분 하락하는 ‘킹(king)달러’ 현상과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코스피를 비롯해 전 세계 증시가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다.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

쳤지만, 동학개미들은 한국 반도체주 만큼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들어 이날까지 개인투자자들은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총 매수액은 11조8664억원 규모다. SK하이닉스는 3조5892억원가량 순매수했다. 순매수 2위다.

개인이 반도체에 베팅하는 배경에는 AI 중심의 구조적 성장 기대가 자리한다.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과거보다 길고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KB증권은 삼성전자가 피지컬 AI 시

장로의 진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차세대D램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로봇과 자율주행 등 신규 시장에서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의 제한적인 웨이퍼 생산능력을 고려할 때 주요 고객사 수요는 이미 내년까지 완판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달 기준 메모리의 고객사 수요 충족률은 60% 수준에 달하고 있어 타이트한 수급 환경이 최소 2028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4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



metro

“부동산 비중 줄이고 금융자산 확대해야”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변수가 한국 경제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어 향후 경제와 주식시장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중동발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생산·소비·재정 전반의 체력을 약화시키며 충격 흡수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외부 충격과 내부 구조적 취약성이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박원갑 위원 “부동산 비중 과도시
변동성 국면에서 큰 리스크 작용”
윤종연 팀장 “리스크 확대 국면
현금흐름 안정적 확보 전략 중요”

김영의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겸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는 지난 24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서 “한국 경제는 이미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L6·L7면>

한국은행은 올해 2월 경제성장률을 2.0%, 내년은 1.8%로 제시했다. 올해 전망치는 직전(작년 11월) 대비 0.2%포인트(p) 상향했지만, 내년 전망은 0.1%p 낮췄다.

국제 유가는 지난 24일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04.49달러로, 중동사태 발발 이전인 2월 27일(72.48달러) 대비 약 44% 상승했다. 환율 역시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20원까지 다가서며 같은 기간 1471원에서 49원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상태다. 중동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저성장 국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올해 2분기까지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진 뒤 3분기부터 시차를 두고 성장을 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외부충격이 고령화로 약해진 경제 구조 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성장 잠재력이 둔화된 상황에서 소비 여력이 제한되며 재정 부담이 확대되고 있어 경기 대응 여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비중이 과도한 ‘랜드 리치, 캐시 푸어(Land Rich, Cash Poor)’ 구조는 금리 상승기와 같은 변동성 국면에서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를 고려하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자산을 재편해야 한다”며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 판단에 앞서 자신의 성과와 과거 투자 성과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 상황에 흔들리기보다 본인에게 맞는 자산과 전략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윤종연 하나은행 Club1도곡 PB센터 지점 Gold PB 팀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환율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자산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현금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부자들은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장기투자 자산을 유지하는 동시에, 채권과 예금 등 안정형 자산 비중을 높여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metro



metro



“2026년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정윤영 금융과행복 네트워크 이사장, 김택동 레이크투자자문 사장,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메트로신문

메트로 한줄뉴스



▲與 “국힘 청년 오디션 결과 참담...다시 ‘윤여케인’ 나타나”
▲조국혁신당 “국힘, 상임위원장 자리 뺏길까 발동동...일부부터 제대로” /사진 뉴시스

▲與 “‘마약왕’ 박원열 송환 계기 마약범죄 근절
총력, 입법지원 강화할 것”
▲한동훈, 장동혁 “서울·부산 수성”에 “다른 곳은
그냥 질 건가”

▲與,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에 “檢 악행
바로잡아야”
▲정청래 “추경 골든타임 안 놓친다...차량 5부제
저도 동참”

李, 부동산 보유세 직접 언급... 투기 근절 고강도 대책 암시

부동산 투기 '최악의 문제점' 지적
일각선 보유세 인상 신호 해석도
靑 "모든 수단 검토하겠다"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암시했다. 각종 규제를 동원해 '갖고 있는 것보다 파는 것이 더 유리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최근엔 보유세를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는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라며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엄정하게, 촘촘하게 0.1%의 물샐틈없이 모든 약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설왕 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정부가 포기하겠지", "버



24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걸려 있다. /뉴스시스

티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청이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게 준비해달라"며 "모든 약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

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깝다. 욕망과 정이가 부딪혀 지금까지 욕망이 이겨왔다"며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사람들이 욕망을 편지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 뉴욕

과 일본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 보유세 현황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세제를 건드리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SNS 게시물과 관련해 '보유세 인상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자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기사 작성이 고맙다며 각국의 보유세 현황을 소개하는 차원이었던 듯 싶다"며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보유세가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는 점에는 다른 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보유세를 올린다기보다는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앞두고 매물을 유도하려는 심리전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해 9·7 공급대책 등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반영돼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에도 시간이 오

래 걸린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직접 '스피커'로 나서 시장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로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생각은 현재로서는 '보유세를 인상한다', 이런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홍 수석은 "5월9일 중과세 조치가 이뤄지고 나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매물이 잠겨 나 또는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는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그중에는 당연히 보유세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결국 이 대통령의 보유세 언급은 시장 반응에 따라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경고이자, 인상 전에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KB 금융그룹
국민의 편을
금융파트너

KB증권 퇴직연금 팡팡하게 붙어나라

IRP

DC

DB

**팡팡한 자산 성장을 맛보고 싶다면,
KB증권 연금하세요**

**비대면 계좌 개설하면
평생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펀드 보수 및 유관기관 수수료 별도 발생 가능

+

**다양한 투자상품
모바일로 실시간 거래**

ETF 리츠 TDF 채권

AI Generated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0933호(2026.03.05~2027.03.04)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거래 시 수수료는 (비대면 계좌) HTS 0.014%~0.015%, 모바일 0.119%~0.12%(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미국 주식 수수료는 온라인 기준 0.25%(주후 제비용 발생가능)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화 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점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 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환산" 보호됩니다.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IRP 수수료: 연 0.20%~0.25%(단, 비대면 개설 시 운용·자산관리수수료 면제) *DC 수수료: 연 0.20%~0.50% *과세 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펀드 보수 및 유관기관 수수료 별도 발생 가능하여, ETF 거래 비용 등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똑똑! **개비증권**

스마트폰 제조사 '원가 충격' 보급형 확대 등 라인업 재정비

메모리 급등·물류 리스크 '이중고'
소비자 수요 이동... 전략수정 불가피

메모리 가격 급등과 물류 리스크로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원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 위축이 신제품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판매 둔화 우려로 가격 인상에 신중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가격을 동결할 경우 수익성 저하 압력도 커지는 상황이다. 수요가 플래그십 신제품에서 보급형과 중고·리퍼비시 제품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배경이다.

25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12% 감소해 11억대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로 항공 운임과 우회 물류 비용 부담까지 확대되면서 업계는 이번 침체를 단순한 수요 부진인 아니라 공급망 부담이 겹친 구조적 조정 국면으로 보고 있다.

시장 전반의 지표 역시 하향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IDC는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평균판매가 14% 상승한 523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메모리 공급이 서버용으로 집중되면서 소비자용 전자기기 부품 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된 결과다. 일반 D램 가격이 단기간 급등하며 스마트폰 제조 원가 부담이 가중된 점도 반영됐다.

특히 메모리 가격 상승은 스마트폰 원가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 원가에서 반도체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수준으로, D램과

낸드 가격 변동이 전체 제조비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다. 최근 고용량 AI 기능 탑재 확대에 따라 메모리 탑재량까지 증가하면서 단말기당 원가 상승폭도 확대되는 추세다.

소비자 행동 변화도 뚜렷하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수리권 제도와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품 수명 연장과 재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 및 리퍼비시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약 145조원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제품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제조사들의 판매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고 시장 확대는 제조사들의 가격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제품 가격이 상승할수록 중고·리퍼 제품과의 가격 격차가 벌어지며 소비자 선택지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프리미엄 제품군일수록 감가 이후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신제품 수요를 일부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일부 제조사들은 가격 인상 대신 사양 조정이나 마케팅 비용 축소를 통해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스마트폰 시장은 판매 부진보다 수요 이동이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신제품 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 소비는 보급형과 중고 시장으로 분산되고 있다. 제조사들은 가격과 수익성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국면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메모리 가격 상승이 단순 원가 문제를 넘어 제품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당분간은 가격 인상과 수요 방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전략 경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카타르 ‘불가항력 선언’에도 국내 LNG 수급 차질 없다”

산업부,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 “전면 중단 준한 상황도 대비”

대체 도입·트레이드로 3~5년 대응 수급 안정 자신... 중단 여부 협의 국제 LNG값 급등 우려 ‘예의주시’ 하반기 전기·난방비 변수로 부상



1일(현지 시간) 카타르 알라이안 산업단지에서 이란의 공습으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치솟고 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 등 걸프 지역에 주둔한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뉴시스

카타르가 한국을 포함해 주요 수입국과 계약한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공급 물량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우리나라 LNG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우리나라는 카타르로부터 전면적으로 LNG가 안 들어오는 상황에 준해 수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체 도입선 및 수급은 문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장기 물량에 대한 공급을 중단할 지 여부는 한국가스공사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카타르 LNG가 전면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시나리오상 3~5년은 트레이드와 대체물량으로 수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추후 글로벌 LNG 가격 급등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 실장은 “LNG의 경우 그동안 구매

자 중심의 시장이 유지됐지만 이번 사태로 판매자 시장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고 가격도 요동칠 수 있어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가스 가격이 오르면 가스발전요금이 상승하고 전력요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도시가스를 통해 공급하는 난방비도 하반기 이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카타르 LNG는 전 세계 공급량의 약 20%를 차지하는데, LNG를 액화하는 주요설비 17개 중 2기가 타격을 받아 수출용 LNG 생산시설 17%가 손상을 입었다며 장기 공급 물량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카타르와 연간 610만톤 수

준의 LNG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LNG 수입 물량의 15% 수준이다. 양 실장은 미국의 제재 유예에 따른 러시아산 원유·납사 도입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미측으로부터 러시아 원유는 달

러가 아닌 중국 위안화, 러시아 루블화, UAE 디르함화 등 다른 대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2차 제재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업계에 전파하고 기업과 함께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유사들은 그러나 아직 러시아산 원유 도입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양 실장은 “도입하려는 러시아 원유가 해상에 떠 있는 물량이라 신뢰성의 문제가 있고, 미국이 이 계약의 완료 시점까지 한달을 줬는데 정유사들은 한달 동안 거래를 완료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 실장은 다만 “러시아산 납사(나프타)는 상대적으로 원유보다 도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한편 산업부 중동전쟁 대응본부에 따르면, 전쟁 이후 상하이 운임지수 기준 중동 노선 운임이 2배 이상 상승하면서 수출기업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3월 1일~20일 기준 수출은 중동으로의 수출이 큰 폭 감소했으나 반도체 수출 호조로 전체 수출은 50% 증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신현송의 첫 과제는 ‘균형’ 환율·집값·부채 동시관리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물가·성장·금융안정의 줄타기 금리보다 어려운 복합리스크 원화 약세·집값 불안의 시험대



두번째 과제는 서울 집값과 가계부채다. 한은은 2월 통화정책방향에서 금융안정 유의 요인으로 수도권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를 별도로 적시했다. 실제 2025년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78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4조원 늘었고, 이 중 가계대출은 1852조7000억원으로 11조1000억 원 증가했다.

주택시장도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 2026년 2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국이 0.28%였지만 서울은 0.74%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경기 방어를 위해 완화 여지를 열어두더라도,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이 다시 먼저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 후보자의 통화정책은 시작부터 자산가격과 부채의 제약을 함께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세번째 과제는 숫자상 반등과 체감의 괴리가 큰 경기다. 한은은 2025년 성장률을 1.0%로 집계했고, 올해 성장률은 2.0%,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전망했다.

다만 한은은 2월 총재 기자회견담회에서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비IT 부문 성장률은 1.4%로 이전 전망과 같아 IT와 비IT 부문 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생의 **꿈** 교사의 **능치** 부모의 **신뢰**

“기초가 탄탄해야 배움이 성장합니다”

서울형 기초학력



교실 안 수업 중에 바로 잡아주는 **충족한 배움**

AI 기반 맞춤형 수업 설계 학생의 학습 속도에 맞는 맞춤형 피드백

협력강사 밀착 지원 수업 중 발생하는 학습 결손 예방

학교 안 학교가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지원**

'키다리샘'이 소규모 통합 지원 심리-정서적 상담, 문화예술 활동, 진로 체험

심층진단 집중학년제 운영 난독(초1) 난산(초3)-경계선지능(중1,고1)

학교 밖 전문기관과 연계한 **원스톱(One-stop) 케어**

서울학습진단 성장센터 운영 11개 지역 센터에서 학습 저해 요인 진단-지원

학습성장 네트워크 구성 대학 및 전문기관과 협력, 내실 있는 진단-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테슬라가 쏘아올린 반도체 인재 쟁탈전... 삼성·SK '긴장'

테슬라, 테라팸에 최대 37조 투입
2나노 웨이퍼 공장 건설 계획
채용조건에 핀펫·GAA 경험 명시
삼성전자, 상반기 공개채용 진행
임직원 평균연봉 전년비 21% 늘어
SK하이닉스, 수시 채용 체제 전환
기본급 2964% 초과이익분배금 지급

테슬라가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거론되는 '테라팸' 계획을 공개한 이후 본격적인 엔지니어 채용에 나서면서 글로벌 반도체 인재 확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기존에도 인력 쟁탈전이 이어져 왔지만 빅테크까지 직접 인재 확보전에 뛰어들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벼랑끝' 수준으로 경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핵심 인력 유출을 극도로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Gemini에 의해 생성된 테슬라의 반도체 인력 채용과 이를 경계하는 국내 기업 간의 인재 쟁탈전 이미지.

25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가 최근 공식 사이트를 통해 타이완에서 반도체 인재를 찾는다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머스크 CEO는 테라팸 프로젝트에 약 200억~250억달러(한화 약 29조9000억원~37조 4000억원)를 투입해 2나노(nm·10억

분의 1m) 웨이퍼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테슬라의 이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핵심 인재 확보 경쟁을 한층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TSMC를 비롯해 삼성

전자 등 주요 업체들이 보유한 첨단 공정 인력을 겨냥한 행보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특히 테슬라가 채용 조건에 핀펫(FinFET)과 게이트올라운드(GAA) 공정 경험을 명시하면서, 첨단 공정에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인재 이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도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7일까지 상반기 공개채용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공개채용에서는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을 중심으로 채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임직원 연봉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1억580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 또한 인재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회사는 '밸런트 하이웨이'라는 새로운 채용 전략을 도입해 글로벌 우수 인재를 신속하게 연결하는 '인재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존 경력직 중심 채용 구조에서 벗어나 신입과 전임직까지 아우르는 수시 채용 체제로 전환하며 인재 확보 범위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지난해 평균 연봉도 전년 대비 60% 가까이 오른 1억 850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고대역폭메모리(HBM) 판매 호조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964%에 달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을 지급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가 적극적인 인재 영입에 나서더라도 반도체 핵심 기술이 특허로 보호돼 있는 만큼 단기간 내 기술 격차를 좁히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인재 확보가 기술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테슬라의 행보가 글로벌 반도체 인력 수급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

'순현금 100조 확보' 목표... ADR 상장 추진 공식화

SK하이닉스 주주총회

'폴스택 AI 메모리 기업'으로 도약
美 첨단 패키징 등 제조역량 강화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메모리 중심 성장 전략과 함께 '순현금 100조원 확보'라는 중장기 재무목표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시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으로 실적과 재무구조가 개선된 가운데 투자 확대를 위한 재무 체력 확보를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다만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현금 확보를 강조하는 기조에 대해 주주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현장에서는 일부 긴장감도 감지됐다.

25일 SK하이닉스는 경기 이전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산업 구조 변화 대응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차선용 미래기술연구 원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되는 안건도 통과됐다. 회사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25일 이천 본사에서 열린 제7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대와 온디바이스 AI 확산을 주요 수요 축으로 제시하며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D램과 낸드를 아우르는 '폴스택 AI 메모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HBM4, HBM4E 등 차세

대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GPU·ASIC 등 글로벌 AI 칩 업체와 협력을 강화해 시장 1위 지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AI D램과 고용량 낸드(eSSD) 등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도 병행한다.

회사는 2025년 HBM 매출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히며 시장 리더십을 강조했다. D램과 낸드 역시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재무구조도 개선됐다. 부채비율은 2024년 말 64%에서 2025년 말 46%로 낮아졌고, 순차입금은 순현금 12조7000억원으로 전환됐다.

SK하이닉스는 '현금 확보'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향후 순현금 100조원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AI 시대 설비 투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재무 체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

심으로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미국 인디애나 첨단 패키징 거점 구축 등 글로벌 제조 역량 강화에 나선다. 청주 패키징 공장(P&T7) 투자도 추진 중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주주환원 정책을 둘러싼 고성도 오갔다. 일부 주주들은 실적 대비 배당 수준이 낮다며 환원 확대를 요구했고, ADR 추진 과정에서 신주 발행 가능성에 따른 주주 가치 훼손 우려도 제기했다. 한 주주는 "이렇게 실적을 내고도 왜 100조원의 현금을 쌓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현재는 순현금이 발생하기 시작한 단계로 글로벌 경쟁사 대비 재무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며 "안정적인 투자 집행을 위한 현금 확보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기 투자와 기술 경쟁력이 유지돼야 주가 상승과 배당 확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HBM 사업 전략도 구체화됐다. 회사

는 올해 전체 HBM 출하량은 기존 계획 대비 큰 변화가 없으며 하반기부터 HBM4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버는 HBM뿐 아니라 CPU와 DDR5 등 메모리·연산 자원이 결합되는 구조로, 고객과 협의를 통해 제품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제품인 HBM4E는 올해 내 샘플 공급이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이며,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미국 증시 상장 추진도 공식화됐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ADR 관련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26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주총을 두고 SK하이닉스가 HBM 호황을 기반으로 투자 확대와 사업 구조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투자와 주주환원 간 균형이 향후 기업가치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

나프타 수출 제한에도... 석화업계, 원료수급 정상화 '불투명'

정부, 긴급 조치 시행 방안 추진
공급 차질 장기화 땀 산업 전반 충격

정부가 나프타 수출 제한 등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중동발 공급 차질이 길어지면서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원료 수급 불안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체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 정부 조치만으로는 생산 차질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중 나프타 수출 제한 등을 포함한 긴급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치가 현장 수급난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정유사의 기존 수출 물량 규모를 두고도 업계 판단이 엇갈리는 데다 수출 제한으

로 실제 시장에 풀릴 나프타 규모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전환 물량이 확보되더라도 정상적인 설비 가동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나프타는 국내 생산 비중이 약 55% 수준에 그치고 나머지는 중동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 이 때문에 공급 차질이 한 번 발생하면 대체 물량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아프리카산과 미국산 원유는 운송에만 한 달 반 이상이 걸리는 데다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다. 러시아산 나프타는 시장에 나오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NCC 공장 한 곳이 며칠 사용될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산 역시 유엔 제재로 인해 국내 도입과 수출 가능 여부가 모두 불투명하다. 여기에 전 세계가 동시에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서면서 가격 경쟁까지 격화하고 있어 업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나프타는 플라스틱과 합성수지 등 기초 화학소재의 핵심 원료로, 반도체와 가전, 건설,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폭넓게 사용된다. 이런 만큼 공급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석유화학산업만에 그치지 않고 전방 산업 전체로 충격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중동 해협의 운송 여건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현재 추진되는 대응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앞서 나프타 수급 문제로 일부 석유화학 공장에서는 가동 중단과 생산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여천 NCC는 개전 직후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일부 공정 가동을 중단했다. LG화학도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2공장 가동을 지난 23일부터 멈추고 연간 120만톤 규모의 1공장만 정상 운영하고 있다. 롯데케미칼 역시 예정된 정기보수(TA) 일정을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 업계 전체가 중동산 이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동시에 검토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싸다고 무작정 사들일 수도 없고 공급망도 당장 원활하게 열려 있지 않아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비축유를 풀고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선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장의 불안이 여전히 크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metr

>> 1면 '피지컬 AI 본격화...'서 계속

목표주가 줄줄이 상향

글로벌 투자은행도 유사한 시각을 보인다. 노무라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29만원에서 32만원으로 올려 잡았다. 이는 지난달 12일 직전 목표가였던 22만원을 29만원으로 상향한 지 불과 한 달 만의 추가 상향 조치다. 노무라증권은 이번 목표주가 상향의 핵심 배경으로 다가오는 2분기 예상 메모리 가격의 뚜렷한 강세와 파운드리 부문 실적 개선을 꼽았다.

노무라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한 12개월 목표주가가 19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노무라증권은 "AI 호황 속에서 빅테크 기업의 투자 사이클이 AI 산업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는 단기적인 유가 상승 사이클보다 훨씬 길고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금리를
업

포인트로
업

우리은행 | SAMSUNG Wallet

세상에 업턴 혜택의 기술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
최고 금리 연 3.5%
[기본 연 0.1%, (2026.03.10 기준, 세전),
최고 금리 한도 2백만원]

삼성월렛머니 우리 적금
최고 금리 연 7.5%
[기본 연 2.5% (2026.03.10 기준, 세전)]

삼성월렛머니 결제 시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 연결하면
최대 11% 포인트 적립
[조건 충족 시], [추가 적립 이벤트 기간
(2026.03.13~2026.04.30)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

- 상품명: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
- 가입채널: 우리은행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우리MON뱅킹
- 대상: 14세 이상 실명인 개인 (1인1계좌)
- * 단,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경우, 비대면 실명인증이 어려워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서만 상품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금리: 최고 연 3.5% ~ 기본 연 0.1% (최대 200만원까지, 2026.03.10 기준, 세전)
- 특징: 삼성월렛머니서비스 연결 시 우대금리 제공
- 기본금리: 연 0.1%
- 우대금리: 삼성월렛머니서비스 연결 유지 시, 매일의 최종 잔액 중 2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아래 기간 동안 우대금리 및 특별금리를 제공함. 가입 후 3년 초과시에는 우대금리를 제공하지 않음
- ① 가입 후 1년 이내: 삼성월렛머니서비스 연결 유지 시 연 2.4%p
- * 단, 26.06.30 까지 가입 시, 연 1.0%p 특별금리 추가 제공
- ② 가입 후 3년 이내: 삼성월렛머니 연결 유지 시, 연 0.9%p
- 이자지급시기: 예금의 이자 결산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실시하며, 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계산하여 그 다음날(월요일)에 원금에 다함
- 이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삼성월렛머니 우리 적금>

- 상품명: 삼성월렛머니 우리 적금
- 가입채널: 우리MON뱅킹
- 대상: 실명인 개인 (1인1계좌)
- 금액: 월 30만원 이하 (원단위 적립 가능)
- 계약기간: 6개월, 12개월
- 금리: 최고 연 7.5% ~ 기본 연 2.5% (2026.03.10 기준, 세전)
- 기본금리: 연 2.5%
- 우대금리: 아래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5.0%p 제공

① 연 2.0%p: 적금 신규 가입 월부터 만기 전전일까지 우리은행 본인 입출식통장을 통해 삼성월렛머니서비스 선택충전 3회 이상 (단, 월1회만 인정)

- ② 연 1.0%p: 만기까지 시까지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 보유고객
- ③ 연 2.0%p: 직전 6개월간 우리은행 예금적금청약미보유고객
- * 단, 우대이율은 우리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등의 항목 중 전화(휴대폰)나 SMS 중 하나 이상 동의 후 만기해지시점까지 유지한 경우 제공되며,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이자는 만기일시지급식으로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지급하며, 계좌에 압류/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이율: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일반정기적금 만기 후 이율 적용함.
- 중도해지 이율: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 이율 적용함.
- 예상 수취 이자액 다음과 같습니다. (본 자료는 예시 자료로, 세부사항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 30만원, 적용금리 연 7.5%(최고금리), 계약기간 12개월 가정 시 총이자(세전) 146,250원
- 월 30만원, 적용금리 연 7.5%(최고금리), 계약기간 6개월 가정 시 총이자(세전) 39,375원

<상품주의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연합회 심의필 제 2026-05812호(2026.03.12.~2027.03.1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2002(2026.03.10.~2026.06.30)

<적립 안내>

- 삼성월렛머니 안내
- 삼성월렛머니는 삼성 월렛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불형 결제수단입니다.
- 삼성월렛머니는 본인 명의 계좌의 연결을 통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충전금액은 2만원이며(미성년의 경우 1만원), 결제금액이 부족할 경우 1만원 단위로 자동충전됩니다.
- 적립 혜택, 신나는 토요일은 월렛데이 최대 11% 포인트 적립
- 기본 적립: 온라인 15%, 오프라인 0.5%
- 추가 적립 * 기간: 2026.03.13(금) ~ 2026.04.30(목)
- ① +15%: 우리은행 계좌를 주 사용 계좌로 설정 후 결제 * 최대 적립 금액: 75만원 (결제 건당 최대 15만원)
- ② +3.0%: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을 주 사용 계좌로 설정 후 결제 * 최대 적립 금액: 2만원 (결제 건당 최대 1만원)
- ③ +5.0%: ② 조건을 만족하는 고객이 토요일에 결제 * 최대 적립 금액: 2만원 (결제 건당 최대 1만원)
- * 추가적립 ①, ②, ③은 모두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주 사용 계좌 설정 방법 ★: 전체 > 내 지갑 > 더나. 포인트 > 연결된 계좌 > 주 사용 계좌 설정
- * 추가적립 ②, ③: 2026.3.6 조기 종료된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 이벤트 시즌 3]에서 이미 본 이벤트의 최대 적립 한도만큼 혜택을 받으신 고객님은 이번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통 안내 사항
- 본 이벤트는 예산 소진 등의 내부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삼성월렛머니서비스 및 우리은행 이벤트 관련 문의사항은 우리은행 삼성 월렛 고객센터(☎1544-8484, 이용 안내시간: 평일(09~18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로 문의 바랍니다.



이벤트 바로가기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3파전 정원오 vs 추격자 구도 뚜렷

박주민·정원오·전현희 본경선 진출
과반득표 없으면 결선투표 진행
'명픽' 정원오 선두 속 견제 집중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서울 시장 후보 본경선 진출자가 박주민·정원오·전현희(기호순) 후보로 압축됐다. 2주 후 진행될 경선을 앞두고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 1등과 2·3등의 전략이 달라지는 모양새다. 특히 '명픽' 정원오 후보에 대한 견제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원회는 본경선에 박주민·정원오·전현희 후보가 진출한다고 발표했다. 이들간의 예비경선 결과다. 본경선은 내달 7~9일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치러진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인이 같은 달 17~19일 결선투표를 치른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정치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길 만한 후보가 없어, 김민석 국무총리를 차출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아직 8개월이나 남았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빠르게는 지난해 11월부터 출마를 선언한 이들도 있었고, 서울 지역구 현역 의원들도 다수 도전했다. 예비경선을 치르기 전까지는 박홍근 현 기획예산처 장관과 서영교 의원도 서울시장 후보군에 이름이 오른 바 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 진출자가 박주민·정원오·전현희(기호순) 후보로 압축됐다. 왼쪽부터 박주민·정원오·전현희 후보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뉴시스

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정원오 당시 성동구청장을 칭찬하면서, 여당 서울시장 경선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다. 그러다 보니 5명으로 치른 예비경선을 앞두고는 토론 횟수 등으로 신경전도 일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개 칭찬으로 '명픽(이재명에게 선택받은)'이라는 별칭을 얻은 정 후보에 대한 견제가 경선전 내내 두드러졌다. 박주민·전현희 후보는 도이치모터스 후원 행사 참석, '성공버스' 지적 등으로 예비경선 마지막 날까지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정원오 후보 선대위 박경미 대변인은 "검증이라는 이름의 저열한 네거티브를 멈춰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박 후보는 "검증은 당원의 권리이고 후보의 의무"라고 압박했다. 본경선을 앞두고는 정 후보에 대한 나머지 후보들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

다. 일단 박 후보의 경우 본경선이 끝나자마자 "닷새 안에 첫번째 정책토론을 시작하자"며 정책 검증 강화를 예고했다.

이제 예비경선이 끝났지만 세 후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예비경선에서는 득표율과 순위를 공개하진 않지만, 1등으로 예상되는 정원오 후보 측은 '과반 득표'를, 2·3등으로 예상되는 박주민·전현희 후보는 1등의 과반을 막고 2등을 확보해 결선투표를 노리는 전략을 구사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세 후보는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김형남·김영배 후보를 언급하며 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 구애하고 있다. 이들 두 후보의 지지가 어느 쪽으로 쏠릴지도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서예진 기자

svj@metroseoul.co.kr



metro

경기지사 카드 고갈 국힘 후보선정 '난항'

현역 중진들 출마 소극적
서울 오세훈 변수로 지연
인천 유정복 단수공천
김문수·이진숙 등 하마평

6·3 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둔 국민의힘이 수도권에 내보낼 후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시장 후보는 유정복 현 시장을 단수공천했지만,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오세훈 시장의 후보 등록 여부때문에 시간을 2주 가량 흘려 보냈다. 그런데 이번엔 경기지사 후보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중량급 인사들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25일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지사 후보와 관련,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최고의 카드"라며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다. 현재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의 양자대결 구도로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배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전날엔 경기지사 공천을 두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전략공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안철수·김은혜 의원에게 경기지사 출마를 권유해왔다. 하지만 두 의원 모두 일찌감치 출마에는 선을 그었다. 꾸준히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원유철 전 의원도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현역 중진들이 나서지 않자 이 위원장도 유승민 전 의원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유전 의원은 개혁보수·합리적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있어, 중도 외연 확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계산에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공관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다. 다만 유전 의원은 공개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거듭 밝혀 유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일각에선 경기지사를 지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거론된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역시 출마 의사를 밝힌 바는 없다. 또 지난해 대선과 전당대회를 연이어 패배한 상황이라 경기지사 후보로 등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권파들사이에선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차출설도 나온다. '투사'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 전 위원장이 경기지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붙는다면 수도권 선거에서 어느정도 표를 모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이정현 위원장은 이날 SNS에 "(이 전 위원장은) 행정가감이라기보다는 정치인감"이라며 "(이 전 위원장의) 배짱이나 투쟁력이나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걸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투력에 비해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서예진 기자



metro

중동 긴장 속 국회 "국민 안전 확보 총력"

외통위, 이란대사 비공개 면담
이란 "한국인 안전 협조" 약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5일 주한 이란대사와 만나 미국과 이란 간 충돌 장기화에 따른 전쟁으로 인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국회 외통위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란의 입장에서 이번 전쟁의 시작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오신 것 같다"며 "이란측에서 입은 인명 피해와 여러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지금 현재도 호르무즈 해협 내 26척의 우리 선박이 있고,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도 한 180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공개 면담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했다"며 "결코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및 여야 간사들과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에 우리 국민이 1만3000명 가까이 있다. 국민들의 안전 문제를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한 이란대사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또 "전쟁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우리 대한민국도 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주한 이란대사는) 한국을 포함

해 국제 사회가 함께 노력해서 중동 지역에 다시 평화가 오도록 함께 노력해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다만 파병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미국, 특히 이스라엘로부터 주로 도발을 받고 있다고 주한 이란대사가 설명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여야, '조작기소 국조' 두고 정면충돌

나경원 "추 변호인들이 국정조사" 박성준 "국회차원서 조사하는 것"

여야가 25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위법적 국정조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적법한 국정조사"라며 "진실 규명을 위한 당연한 역할"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 시작부터 강하게 맞붙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국민의힘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 반대' 피켓을 들고 인사말부터 "불법적 국조 특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민주당 특위 위원장이 "인사 말만 하라"고 지시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은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국민의힘 광국택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

로 (국정조사가)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고 했다.

같은 당의 나경원 의원은 "이 특위는 이름부터 '조작기소'라고 답을 정해놓고 있다"며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정권에서 부역하며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라며 국정조사 진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에서 다 부역하면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라며 "국정조사는 견제받지 않은 검찰의 무도한 기획 수사와 표적 수사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렵나 싶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계신데, 검찰이 조작기소를 한 게 있다면 밝혀내야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죄 지우기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사건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유플러스 AI와 경찰청이 함께하면 범인의 목소리가 보입니다.

AI 기술로 수집된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를
경찰청과 함께 추적·검거하는
VOICE WANTED PROJECT에 동참해 주세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LG유플러스의 기술과 경찰청이 함께하겠습니다

VOICE WANTED에 동참해 주세요

보이스피싱 통화 녹음 후 www.counterscam112.go.kr 에 제보

iOS : 무료 AI 통화 앱 익시오(IXI-O)를 통해 통화 녹음

Android : 전화 앱의 녹음 기능 or 익시오(IXI-O)를 통해 통화 녹음

예치금 늘었지만 규모·수익 줄어 가상자산 시장 '유동성 정체' 국면

2025 하반기 사업자 실태조사

작년 말 시총 87.2조, 8% 줄어들어
일평균 거래액 상반기보다 15%↓
원화마켓 시총 86.9조, 99.6% 달해
코인마켓 0.4% 그쳐 시장졸림 지속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자금과 이용자는 늘었지만, 거래와 수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유동성 정체' 현상이 나타났다. 시장으로 돈은 유입됐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시장 활력이 떨어진 모습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25일 가상자산사업자 27개사(거래소 18개사, 지갑·보관업자 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조사 결과 2025년 말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6월 말보다 7조9000억원(8%) 감소했다. 일평균 거래규모도 상반기 6조4000억원에

서 하반기 5조4000억원으로 15% 줄었다. 거래소 영업손익 역시 6178억원에서 3807억원으로 38% 급감하며 시장 체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됐다. 주요 가상자산 가격 하락과 시장 불확실성 확대가 시장 지표 전반을 끌어 내렸다.

반면 시장 참여 저변은 확대됐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077만개에서 1113만개로 36만개 늘었고, 이용자 원화예치금도 6조2000억원에서 8조1000억원으로 31% 증가했다. 대기성 자금은 늘었지만 거래 회전과 시장 가치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자금이 시장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실제 거래로 연결되지 않는 '회전율 저하'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시장 구조의 쏠림도 지속됐다. 원화마켓 시가총액은 86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99.6%를 차지했다. 반면 코인마켓은 3603억원으로 0.4%에 그쳤다. 다만 코인마켓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8억3000만원으로 상반기보다 36% 늘었고, 영업손실도 151억원으로 줄며 일부

회복 흐름을 보였다. 상장 종목 수는 증가했지만 시장 건전성은 오히려 악화됐다. 지난해 말 국내 거래 가상자산은 중복 포함 1732개, 중복 제외 712종으로 각각 194개, 59종 늘었다. 특히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296종으로 6%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 자산의 질이다.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국내 시가총액은 7000억원으로 46% 급감했으며, 이 가운데 43%는 시가총액 1억원 이하 소규모 자산으로 나타났다. 유동성이 얇은 구조가 확대되면서 가격 급변 위험도 커진 상태다.

실제 가격 변동성도 높았다. 하반기 평균 최대낙폭(MDD)은 73%로 상반기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원화마켓은 74%, 코인마켓은 46%,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77%에 달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28.3%), 코스닥(18.8%)과 비교하면 변동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유가·환율 불안... 소비자 심리 '급랭'

한은, 3월 소비자동향조사
소비자심리지수 107.0, 5.1p 하락
물가상승 등 '중동궤 리스크' 영향

소비자심리지수(CCSI) 추이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소비자심리를 크게 끌어 내렸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장기평균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했지만 한 달 만에 5포인트(p) 넘게 떨어졌고, 경기 전망은 악화된 반면 기대인플레이션은 다시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6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7.0으로 전월(112.1)보다 5.1p 하락했다. CCSI는 여전히 장기평균 기준선인 100을 웃돌았지만, 소비자들의 경기 인식은 한 달 사이 뚜렷하게 악화됐다. 조사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다.

한국은행은 이번 하락 배경으로 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상승 및 경기둔화 우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실제로 현재경기판단CSI는 95에서 86으로 9p 떨어졌고, 향후경기전망CSI는 102에서 89로 13p 급락했다. 취업기회전망CSI도 93에서 89로 4p 하락했다.

반면 가계 재정 관련 지표의 하락 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현재생활형편CSI는 94로 2p, 생활형편전망C

SI는 97로 4p, 가계수입전망CSI는 101로 2p 각각 내렸다. 다만 소비지출전망CSI는 111로 전월과 같아, 소비자들이 경기 불안은 크게 느끼면서도 당장 지출 계획을 급격히 줄이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물가 불안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로 전월보다 0.1%p 상승했고, 3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0.1%p 올랐다. 소비자들은 향후 1년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으로 석유류제품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응답 비중은 80.1%에 달했다. 이어 공공요금 35.6%, 농축수산물 28.6% 순이었다.

김주형 기자

지난해 車보험 손익 951억... 84% '급감'

금감원,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투자손익 34% 늘어 흑자는 유지
손해율 87.5%, 수익성 악화 원인

지난해 자동차보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보험영업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 투자손익 덕분에 총손익은 간신히 흑자를 유지했지만, 손해율 상승으로 합산비율이 손익분기점을 웃돌면서 업계 전반의 채산성이 흔들렸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총손익은 951억원으로 전년(5891억원)보다 4940억원(83.9%) 감소했다. 투자손익이 8031억원으로 2043억원(34.1%) 늘었지만, 보험손익이 손해율 악화 영향으로 전년보다 6983억원 줄어든 7080억원 적자

를 기록한 영향이다. 자동차보험 매출액인 원수보험료는 20조2890억원으로 전년(20조6641억원)보다 3751억원(1.8%) 감소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증가율이 2022년 2.4%, 2023년 2.0%, 2024년 1.3%, 2025년 0.8%로 둔화한 데다, 2022년부터 이어진 보험료 인하 효과가 누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수익성 악화의 직접 원인은 손해율 상승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5%로 전년(83.8%)보다 3.7%포인트(p) 상승했고, 사업비율은 16.2%로 전년과 유사했다.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한 합산비율은 103.7%로 3.6%포인트 올라 손익분기점인 100%를 넘어섰다.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2024년 97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7080억원

적자로 손실 폭이 급격히 커졌다.

금감원은 사고 건수 자체보다 사고 1건당 비용 증가가 수익성을 끌어내렸다고 봤다. 지난해 자동차사고 건수는 383만8000건으로 전년보다 0.3%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발생손해액은 병원치료비와 자동차 부품비, 정비공임 상승 등의 영향으로 2.2%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한방 치료비가 6.2%, 양방 치료비가 3.2%, 자동차 부품비가 6.0%, 정비공임이 2.9% 올랐다.

금감원은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차단 대책이 선의의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협의하고, 제도개선에 따른 손해율 개선 효과가 향후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감독할 방침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오른쪽 첫 번째)가 가덕도를 직접 방문해 공사 예정지 주변 상황을 살피고 있다. /대우건설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연내 착공

현장설명회 마치고 기본설계 돌입

대형국책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대우건설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부지조성공사의 핵심 수행 주체로 참여 중이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현장설명회를 마치고 기본설계 단계에 돌입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약 6개월간의 설계 기간을 거쳐 올해 연말에는 우선 시공분을 착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단계적으로 본 공사가 확대되며 총 106개월에 걸친 대규모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양 토목공사 기술력은 단순한 실적을 넘어 40여 년간 수행한 국내외 굵직한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검증됐다"며 "2024년, 2025년 시공능력평가에서 토목분야 1위, 도로 및 항만 분야에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토목 최강자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1984년 광양제철소 부지 조성을 시작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시

화호 조력발전소, 부산신항, 진해신항, 동해신항 등 국내 주요 프로젝트는 물론 카타르, 오만, 알제리, 이라크 등 해외 시장에서도 꾸준히 항만 공사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바 있다.

특히 부산~거제를 잇는 거가대로는 최대 수심 48m 연약지반에서 시공된 세계 최장 수준의 해저 침매터널 공사로 약 5만 톤 규모 구조물 18개를 오차 5cm 이내로 정밀 연결하며 글로벌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개통 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침하·누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는 5조 원 규모의 이라크 알포 신항만 공사가 대표 사례다. 방파제-컨테이너터미널 안벽-접속도로 등이 초연약지반 매립 위에 건설되는 고난도 현장임에도, 대우건설은 연약지반 특성에 최적화된 시공 공법과 정밀 계측 시스템, 실측 데이터 기반의 역해석 기술을 도입해 부동침하를 성공적으로 제어하며 차질 없이 시공 중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ABL생명 FC 연도대상 시상식 우수성과 166명 수상

ABL생명은 지난 24일 서울 그랜드워커힐 비스타홀에서 지난 한 해 우수한 업적을 거둔 FC와 영업관리자들을 시상하는 '2025 FC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FC 연도대상 시상식'은 ABL생명의 전속 설계사 조직인 FC(Financial Consultant·재무컨설턴트) 채널이 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거둔 보험영업인의 공로를 인정하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시상식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곽희필 ABL생명 대



ABL생명이 지난 24일 서울 그랜드워커힐 비스타홀에서 지난 한 해 우수한 업적을 거둔 FC와 영업관리자들을 시상하는 '2025 FC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BL생명

표이사를 비롯해 FC와 영업관리자, 관련 임직원 등 약 213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FC와 영업관리자 총 166명이 가족과 동료의 축하를 받고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행사는 시상뿐 아니라 만찬 및 축하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시상식의 가장 큰 영예로 꼽히는 '명

인' 상은 ▲동대문지점 권선희 TM, ▲대구지점 김현기 TM ▲동대문지점 광영희 FC ▲여의도지점 한정현 FC ▲포항지점 박정미 TM ▲제주지점 고훈순 TM ▲경인지점 조항연 TM ▲상주지점 채순영 TM ▲전북지점 이성실 FC ▲충북지점 오경애 TM ▲인제지점 전민아 TM 등 11명이 공동 수상했다.

/김주형 기자

‘평양 전기차 국제 엑스포’ 시동 “남북관계 물꼬트는 중요한 단초”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서 공식 논의 테슬라·현대차 등 기업참여 유도 “그린 데탕트’ 현실적 협력 수단”

세계 전기차 산업이 단순 자동차 기술 경쟁을 넘어 국제적 협력은 통한 환경, 에너지 등의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이같은 산업 흐름 속에서 북한 평양에서 국제 전기차엑스포를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과 산업 협력 확대를 꾀하는 논의가 제주에서 열렸다.

25일 제13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제주신화월드 랜딩볼룸에서는 ‘2027 평양 국제 전기차 엑스포(PI EVE) 추진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됐다. 세계e-모빌리티협회(GEAN)가 주최하고,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IEVE)와 평양 국제 전기차 엑스포 추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김대환 세계전기차협회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주석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7년 간 끊겼던 평양 국제 전기차 엑스포 의제가 50여개국 협회 회원국들의 재승인 받았다”며 “한라에서 백두까지의 염원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한반도 전기차 산업 협력의 첫 공식 논의의 장으로 향후 민간 주도 충전 인프라 구축과 배터리 산업 협력, 스마트그리드 기반 전력망 연계 등 전기차 전환의 실질적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개발협력센터장은 전기차 엑스포가 ‘그린 데탕트’를 실현할 현실적 협력 수단이라고 봤다. 단기적인 환경·관광 교류에서 중장기적 에너지 인프라 협력으로 확대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대환 세계e-모빌리티협회 회장이 25일 제주신화월드 랜딩볼룸에서 개최된 제13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기간 중 ‘2027 평양 국제 전기차 엑스포 추진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임 센터장은 전기차 엑스포를 통해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정리했다. 그는 “전기차가 화해 협력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지금 남북간 중심으로 협력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제 전기차 협의회를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세계적 평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엑스포는 북한의 변화된 모습을 국제 사회에 공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우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특임교수는 평양 국제 전기차 엑스포를 전기차, 배터리, 충전 인프라, 스마트그리드를 포괄하는 종합 산업 플랫폼으로 발전시키자고 주장했다. 제주 엑스포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양을 동북아 친환경 모빌리티 협력 거점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평양을 중심으로 원산 갈마지구와 백두산 삼지연시를 연계한 분산 개최 방안과 함께, 평양~원산 간 170km 고속도로 전기차 주행 실증, 대학생·학계·연구개발자가 참여한 신기술 토론 등 학술과

실증이 결합된 프로그램도 제안했다. 이어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의 플렉스 그렌크 한국·몽골사무소장, 중국 ICLEI 동아시아본부 주수 본부장이 참여해 국제 협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테슬라, 현대차, BMW, 폴크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배터리, 충전 인프라,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글로벌 기업의 ESG 경영과 북한의 탄소중립 시장 선점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결합한 모델이다. 김대환 세계e-모빌리티협회 회장은 ‘2027 평양 국제 전기차 엑스포’ 개최를 공식 제안하는 건의문을 낭독하고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평양 국제 전기차 엑스포가 글로벌 패밀리와 함께 하는 산업과 기술 중심의 민간 협력 모델로 추진돼야 한다”며 “제주에서 시작된 전기차 혁신이 한반도를 넘어 실크로드를 통해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ysw@metroseoul.co.kr



metro

이재용 회장, 중동 임직원 500만원대 선물 (삼성전자)

삼성전자 현지 임직원·가족 격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격려 메시지와 함께 선물을 전달했다.

삼성전은 지난 24일 이 회장의 제안으로 중동 지역 파견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격려 선물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지는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국에 체류 중인 임직원 500여명과 가족이다.

임직원들은 삼성전자 16인치 갤럭시 북6 프로 1대 또는 갤럭시 S26 울트라 스마트폰(용량 512GB) 및 갤럭시탭 S11(Wi-Fi-용량 256GB)로 구성된 모바일 기기 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족들에게는 전통 시장과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임직원 1인 및 가족당 선물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0만원 수준이다.

삼성전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가 악화하자 필수 인력을 제외한 임직원을 대부분 귀국시키거나 제3국으로 대피시켰다.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등 분쟁 지역에서는 전원 철수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UAE, 카타르, 사우디 등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만 인력이 남아 있다. 잔류 인력은 발주처 계약에 따른 사업 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력으로, 안전이 확보된 지역에서만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동은 글로벌 공급망의 요충지로, 인공지능(AI)과 에너지·교통·통신 등 인프라 투자가 활발해 삼성과의 협력 관계도 확대되고 있다.

삼성 임직원들은 중동에서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플랜트,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 회장은 “중동 지역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직원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보안솔루션 국제 CC 인증

녹스 기반 강력한 보안환경 인정받아

삼성전자는 2026년형 스마트 TV와 스마트 모니터에 적용된 보안 솔루션이 국제 공통평가기준(CC)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CC 인증은 정보보호가 필요한 제품의 보안성을 평가하는 국제 표준 인증으로 전 세계 36개국이 상호 인정하는 평가 인증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스마트 TV에 자체 보안 솔루션 ‘삼성 녹스’를 적용해 올해로 12년간 CC 인증을 받았다. 또 올해 업계 최초로 스마트 모니터도 CC 인증을 획득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성능을 입증했다.

이번 인증은 삼성 스마트 TV와 스마트 모니터에 적용된 삼성 녹스의 핵심 보안 역량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통해 수여됐다.

검증 항목은 ▲커널 영역의 무결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SIM’ ▲웹 브라우저 사용 시 피싱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WBS’ ▲실행 파일의 서명을 검증해 비인가 실행을 차단하는 ‘UEP’ 이다.

이외에도 삼성 녹스는 ▲하드웨어 기반 독립 보안 구역인 ‘트러스트존’ ▲민감 정보를 보안집에 별도로 보호하는 ‘녹스 볼트’ ▲기기 간 보안 상태를 통합 관리하는 ‘녹스 매트릭스’ 등 다중 보안 구조를 통해 강력한 보안 환경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손태용 부사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삼성 녹스가 적용된 스마트 TV와 스마트 모니터가 최고 수준의 보안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가전, 히트펌프 등 ‘MCE 어워드’ 석권

삼성전자 가정용에어컨 등 8관왕 LG전자 히트펌프 분야 다수 수상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유럽 최대 냉난방공조(HVAC) 전시회 ‘MCE 2026’에서 시스템 에어컨과 히트펌프 등 각사 핵심 제품들로 대거 수상하는 등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냉난방공조 전시회 ‘MCE 2026’에서 8개의 ‘MCE 어워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공간 환경에 맞춰 특화된 기류를 선택할 수 있는 2026년형 ‘AI 무풍콤보프로벽걸이’ 가정용 에어컨은 2개의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제품은 ‘모션 레이더’ 센서로 사용자의 위치와 활동량을 감지해 직접풍과 간접풍 등 최적의 기류를 고객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AI)·모션 바람’ 기능을 탑재했다.

화석연료 보일러를 대체할 기술로 주목받는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 ‘EHS’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MCE 2026에서 삼성전자 직원이 참석자들에게 수상 제품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라인업에서는 ‘EHS 올인원’과 ‘EHS 캐스케이드 컨트롤러’가 나란히 상을 받았다. 가정용 EHS 실내기인 ‘DVM 하이드로 유닛’과 ‘클라임트 허브’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두 제품은 실내기에 탑재된 7형 스크린으로 집안 곳곳의 냉난방 기기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LG전자도 8개의 ‘MCE 어워드’ 우수상을 받으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했다. 특히 히트펌프(AWHP) 분야에서 혁신

신 제품이 다수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실외기와 실내기에서 모두 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을 받은 LG전자의 공기열원 히트펌프 실외기인 ‘썬마브이 R290 노노블럭’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0.02에 불과한 R290 냉매를 사용한다.

이번에 처음 선보인 공기열원 히트펌프 실내기 신제품인 ▲컨트롤 유닛 ▲하이드로 유닛 ▲콤비 유닛도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히트펌프 실내기는 실외기와 연결되어 가정의 냉난방을 제어하고 온수를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기본 제품인 컨트롤 유닛은 수도 배관 연결 없이 간소한 독립형으로 설계됐다. 하이드로 유닛은 백업 히터, 3방향(3way) 밸브, 팽창 탱크 등 히트펌프 주요 구성요소를 내장한 제품이다. 콤비 유닛은 200리터 물탱크까지 내장한 올인원 제품으로, 아파트나 신축 주택 등 상대적으로 설치 공간이 협소해 물탱크를 별도로 놓기 어려운 곳에서 제약없이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한화오션, LNG선 등 1.3조 대규모 수주

올 들어 23억달러 이상 수주

한화오션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3척, 아프리카 지역 선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25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VLCC 3척 5887억원, LNG운반선 2척 7563억원으로 총 1조 3450억원 규모다.

LNG운반선 2척은 오는 2029년 5월 15일까지, VLCC 3척은 2029년 6월 29일까지 건조해 인도할 예정이다. 대금은 공사 진행에 따라 분할 수금하는 조건이다.

한화오션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VLCC 6척, LNG운반선 4척, WTIV(풍력발

전기설치선) 1척 등 총 11척, 23억2000만달러 규모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한화오션은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VLC C 운임이 반등하고 있다며, 이 같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선주들의 투자 결정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LNG운반선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오는 2028년 이후 다수의 LNG 터미널 개발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어 중장기적인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 같은 시장 환경에 맞춰 고부가가치 대형선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가며 시장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모두 창업’으로 혁신창업가 5000명 발굴... 지역상권 살린다

중기부, 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서
부처 합동 창업 프로젝트 발표
창업기관·선배 참여 플랫폼 구축
로컬창업가 매년 1만명 발굴·육성
2030년 글로벌상권·백년시장 조성
핵심 “모두 창업” 창업가 도전 핵심

정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 창업가 5000명을 발굴한다.

119곳의 창업 보육기관, 526명의 선배 창업가 등이 두루 참여하는 창업 플랫폼을 구축해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든다.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통해 선 매년 로컬창업가 1만명을 발굴하고 로컬기업 1000곳을 육성한다. 2030년까지 글로벌 관광 상권 17곳, 로컬테마상권 50곳, 백년시장 12곳도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연 ‘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두의 창업”은 창업가의 도전이 핵심이라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창업자는 자금, AI 솔루션, 규제 스크리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모두의 창업은 다양한 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창업 환경 구현을 목표로 ▲체계적인 성장 경로 구축 ▲혁신 창업 플랫폼 도입 ▲재도전 생태계 강화를 위주로 진행한다.

선발 예정인 5000명의 혁신 창업가는 지역 균형성장을 고려해 비수도권에서 70% 이상을 뽑는다.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창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솔루션’도 지원한다. 혁신 아이디어가 규제 장벽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컨설팅도 지원한다.

119곳의 창업·보육기관, 526명의 선

배 창업가가 참여하는 혁신 창업 플랫폼도 구축한다.

도전과 실패의 경험이 경력이 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모두의 창업 활동 경험을 개인 이력으로 쓸 수 있게 ‘도전 경력 증명서’를 발행하고 향후 창업 지원 사업 시 우대한다. 이미 참여한 창업가들이 제2차 모두의 창업에 다시 도전할 경우 제도권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중기부는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통해 상권의 점(창업)·선(성장)·면(확산)을 중심으로 한 지원 전략도 수립했다.

지방 상권의 씨앗(점)이 될 로컬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국민평가 방식으로 매

년 로컬 창업가 1만명을 발굴하고 로컬기업 1000개사를 키운다. 90% 이상을 지방에서 선발한다.

발굴에 그치지 않고 선배 창업가 100명과 투자사, 대학·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300명으로 구성된 멘토단이 로컬 창업자를 뒷받침한다. 지방에서 밀착 지원할 수 있는 로컬창업타운도 2030년까지 17곳으로 늘린다.

로컬 창업을 돕는 인공지능(AI) 서비스 3종도 신설한다. 올해 4분기 도입될 ‘AI 도우미 서비스’부터 ‘AI 교육과정’, ‘AI 내비게이션’을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지역 문제 해결형 로컬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로컬창업을 육성하고 인구감소지역에 100명의 ‘농촌 소멸창업 청년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금융권이 출연하는 1000억원 규모의 특산물 구매 특례보증으로 지역 주민과 동반 성장도 꾀한다. 그밖에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 민박 서비스, 관광상품 개발, 사회연대형 로컬기업 등을 지원한다.

로컬 기업 성장과 지방 상권 구축을 위해 ‘립스(LIPS)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립스는 민간투자를 유치한 로컬기업에 최대 5억원의 투자 금액 매칭을 지원한다. 사업자 자금 최대 2억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노삼석 대표가 지난 24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진

한진

노삼석 대표이사

2029년까지 연임

“글로벌 물류 기업 위상 공고히”

노삼석 한진 대표이사가 3년간 더 회사를 이끌게 됐다.

한진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제7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임기가 끝난 노삼석·조현민 사내이사의 연임 안건도 통과했다. 이어 개최된 이사회에선 임기가 만료된 노삼석 대표의 연임을 의결했다.

노 대표는 지난 2020년 취임 이후 안정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진의 실적·양적 성장을 견인해 왔다.

이번 재선임으로 노 대표는 2029년 3월까지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한다. 향후 한진은 노 대표의 지휘 아래 AI 기반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노 대표는 “앞으로도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주 가치를 높여 글로벌 물류 기업으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GM, 韓 사업장에 9000억 투자... 소형 SUV 거점 강화

작년 발표한 3억달러 포함
생산설비·안전인프라 고도화
3년 연속 흑자 속 철수설 진화



글로벌 시장 수출을 위해 선적 중인 쉐보레 트렉스 크로스오버. /한국지엠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 사업장에 3억달러(약 4500억원)를 추가로 투자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투자 계획과 합하면 총 6억달러(약 9000억원)를 한국에 투입하는 것이다. GM은 한국GM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성공한 만큼 그동안 불거진 철수설을 불식시키고 소형 SUV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GM은 제품 및 공장 설비를 업그레이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사업장에 6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25일 밝혔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 겸 CEO는 “한국에서 개발 및 생산된 글로벌 차량의 성공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신규 업체들이 잇따라 G

M의 수출 시장에 진입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우리는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투자는 한국 사업장 운영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GM은 생산 설비 고도화, 안전 인프라 및 작업환경 개선, 운영 효율성 향상에 투자를 집중한다. 이 일환으로 새로운 프레스 기계 도입을 포함한 생산 시설 현대화에 3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GM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국 생산 소형 SUV 모델의 공장 성능 향상, 상품성 강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억 달러 투자 계획에 추가되는 내용이다.

한국GM은 이날 한국에 대한 총 6억

달러 투자 계획을 기념하기 위해 부평 공장내 프레스공장에서 노동조합과 공동 행사를 개최했다.

비자레알 사장은 “이번 투자의 핵심에는 매일 현장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다”며 “이번 투자를 통해 도입되는 최첨단 프레스 설비는 제조 현장의 안전과 품질,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 세계 고객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 SUV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GM 한국사업장의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헌신하며 함께 노력해 온 직원들과 노동조합 파트너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

포스코퓨처엠, 무음극 리튬메탈 배터리 개발 나선다

금호석화·BEI와 업무협약 체결
에너지밀도 높이고 충전속도 향상

포스코퓨처엠이 금호석유화학, 비아이(BEI)와 손잡고 에너지밀도와 충전속도를 대폭 끌어올린 ‘무음극 리튬메탈 배터리’ 개발에 나선다. 차세대 배터리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소재부터 셀 제조까지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포스코퓨처엠은 25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금호석유화학, BEI와 ‘무음극

리튬메탈 배터리’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포스코그룹이 추진 중인 차세대 배터리 소재 및 기술 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세 기업이 각자의 핵심 역량을 결집해 고성능 배터리 기술 확보에 나선다.

세 회사가 개발하는 무음극 리튬메탈 배터리는 음극재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공간을 활용해 에너지밀도를 기존 대비 30~50% 높일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다. 충전 시 양극재의 리튬이온이

음극을 거치지 않고 금속 집전체 표면에 직접 부착되는 방식으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2배 이상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

이 같은 구조는 배터리 경량화와 고성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어 드론, 항공 모빌리티, 고성능 전기차, 로보틱스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생산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투자 부담을 줄이고 공정 단순화를 통해 제조 비용 절감 효과도 가능

하다.

이번 협력에서 포스코퓨처엠은 무음극 배터리에 최적화된 양극재 기술을 바탕으로 성능 구현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금호석유화학은 전자 이동을 돕는 고기능성 탄소나노튜브(CNT)를 적용해 충전 속도와 수명 향상에 기여하고 BEI는 이를 실제 배터리로 구현하는 제조 기술을 담당한다.

세 회사는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한편 드론과 로보틱스 등 신규 시장을 중심으로 공동 사업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김승호 기자

공영홈쇼핑

‘대한민국 수산대전’

20% 할인쿠폰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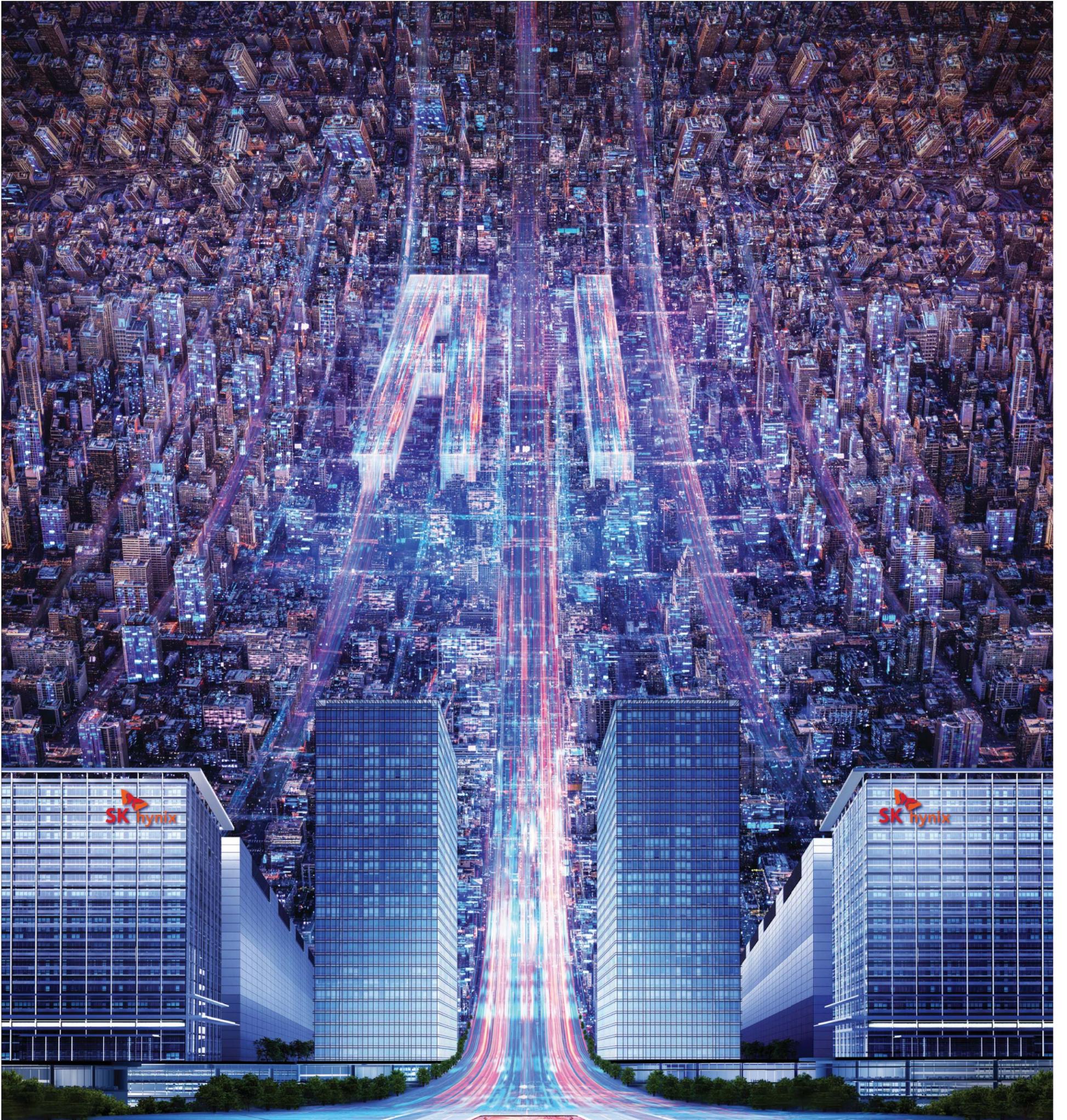
‘수산인의 날’ 기념 기획전도

공영홈쇼핑이 4월1일 ‘수산인의 날’을 맞아 해양수산부와 함께 ‘대한민국 수산대전’ 특별전을 진행한다.

25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물가 부담은 낮추고 소비 촉진을 위해 기획한 수산대전은 이날부터 오는 4월7일까지 2주간 공영홈쇼핑 온라인 몰과 모바일 앱을 통해 수산물 20% 할인 쿠폰을 선사한다. 오징어, 굴비, 갈치, 고등어, 김 등 인기 수산물이 대상으로, 쿠폰은 계정(ID)당 일주일에 한 장씩 발급하며, 최대 1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공영홈쇼핑의 수산물 전문 프로그램 ‘바다어부’에서도 특집 방송을 진행한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과 오후 4시 40분, 토요일 오후 5시 20분에 은갈치, 오징어, 굴비 등을 판매한다.

모바일라이브커머스인 ‘공영라방’에서는 이날 제주도를 직접 찾아 현장 라이브를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SK hynix

SK hynix

시 대 전 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서 새로운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해킹 정황 시 정부 현장조사... 정보통신망법 손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침해사고 반복 땐 매출 3% 과징금
ISMS·ISMS-P 인증제 실효성 개선

국회와 정부가 지난해 연이은 해킹 사태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시에 움직였다. 핵심은 여야가 발의한 20여 개 법안을 통합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과, 정보보호 인증제 전반의 실효성 강화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킹 사고의 예방부터 대응, 사후 제재까지 전 과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고 발생 시 통지·조사·제재 체계를 대폭 손질하고, 그간 논란이 됐던 정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해킹 사고 정황이 있을 경우 기업 신고 이전에도 정부가 현장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하루 기준 평균 매출액의 0.03% 범위에서 부과된다. 자료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지난해 연말에 일어난 기업들의 해킹 사태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나섰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5년 내 2회 이상 침해사고를 일으킬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징벌적 과징금(최대 매출액의 10%)과는 별도의 규율이다.

정부는 인증제 개선도 동시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ISMS·ISMS-P

인증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ISMS-P는 기업이나 기관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지를 평가하는 국가 공인 인증제다. 다만 지난해 대형 해킹 사태 당시 인증 기업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정부는 ▲인증 의무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예비심사 도입과 기술심사·현장실증형 심사 적용 등 심사방식 개편 ▲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심사기관 감독 강화 및 심사원 전문성

제고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CE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실태점검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기업들이 책임성을 기반으로 자율적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법·정책 동시 추진은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대형 해킹 사고의 영향이 크다. SK텔레콤을 비롯해 롯데카드, KT, 쿠팡 등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침해사고를 겪으며 수백 명에서 수천만 명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일부 기업에서는 초기 조사 방해 의혹까지 제기됐고, 사고 기업 대부분이 ISMS-P 인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도 비판을 키웠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사후 제재 중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LGU+ 현대카드 다이브 디지털 콘텐츠 추가

LG유플러스는 현대카드의 디지털 문화 콘텐츠 플랫폼 ‘현대카드 다이브(DIVE)’와 협업해 디지털 콘텐츠 라인업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부터 통합 앱 ‘유플러스원(U+one)’ 내 디지털 콘텐츠 채널 ‘플러스 메뉴’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채널에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가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번 협업을 통해 플러스 메뉴에는 현대카드 다이브의 콘텐츠가 추가된다. 해당 콘텐츠는 통신사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양사는 협업을 기념해 공동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다음달 17일까지 플러스 메뉴에서 현대카드 DIVE 콘텐츠를 3개 이상 시청한 뒤 선호 콘텐츠를 선택해 응모하면 경품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 고객이 아니어도 참여 가능하다.

경품은 발뮤다 더 토스터 프로(1명), 이솝 사위 룸 세레나데 세트(3명), 신세계 상품권 5만원권(6명) 등이다.

오프라인 혜택으로는 이달 말까지 서울 용산구 현대카드 스토리지에서 열리는 ‘도널드 저드: 퓨처(Donald Judd: Furniture)’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유플러스원 앱을 통해 전시 페이지를 제시하면 입장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현대카드 DIVE 플랫폼에서는 LG유플러스가 기획한 전시 ‘권오상의 심플렉서티(Simplexity): AI, 인간 그리고 예술’ 관련 이벤트도 진행된다. 해당 전시 페이지에 참여한 뒤 오프라인 공간을 방문하면 추첨을 통해 전시 관련 경품을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카카오게임즈, 지분구조 재편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LAAA 인베스트먼트, 최대 주주로
카카오 게임즈, 약 3000억 자금 확보
등 해외시장서 사업기회 확대

카카오게임즈가 글로벌 시장 공략과 중장기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전략적 투자 유치 및 지분구조 재편을 추진한다. 이번 거래에는 라인야후가 출자한 투자 목적 법인 엘트리플레이(LAAA) 인베스트먼트가 참여한다.

25일 카카오게임즈의 공시에 따르면 LAAA 인베스트먼트는 카카오가 보유한 카카오게임즈 지분 일부를 인수하고, 동시에 카카오게임즈가 발행하는 신주와 전환사채(CB)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거래는 5월 중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며, 완료 시 LAAA 인베스트먼트가 카카오게임즈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예정이다. 카카오는 2대 주주로 남아 전략적 협력 관계를 이어간다.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이사

이번 지분구조 재편은 단순 자금 조달을 넘어 글로벌 확장 전략과 맞물린 결정으로 읽힌다. 카카오게임즈는 약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해 재무 안정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을 포함한 주요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최대주주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사업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구조 재편을 일부 재투자하며 카카오게임즈와의 관계를 유지한다. 최대주주 지위는 내려놓지만 전략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지속하며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장기 성장 기반 강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지배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하면서도 사업 시너지를 유지하려는 구조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거래를 카카오게임즈의 글로벌 전략 본격화 신호로 보고 있다. 국내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게임 및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자본과 파트너십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LY주식회사(라인야후)와의 연결을 통해 아시아 시장에서의 협업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번 재편을 계기로 개발력과 서비스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IP 경쟁력에 더해 해외 유통, 협업, 콘텐츠 확장까지 아우르는 구조를 강화하고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카카오는 이번 계약에서 임직원의 고용 안정과 기존 근로조건 승계를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조직의 연속성과 기업 문화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변화에 따른 내부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이번 전략적 투자 유치와 지분구조 재편은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파트너사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SKB, 경남 합천·창원 경로당에 ‘Btv 온애드’ 구축

스마트경로당 사업 확대

SK브로드밴드는 경남 합천군과 창원시 경로당에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Btv 온애드’ 구축을 완료하고 스마트경로당 사업 확대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경로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기술을 활용해 고령층 복지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스마트빌리지 사업의 일환이다. ‘Btv 온애드’는 경로당 내 디지털 정보제공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3월 합천군 내 경로당 50개소를 대상으로 ‘Btv 온애드’를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 2월에는 470개소를 확대 구축을 마쳤다. 창원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경로당 4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 중이다.

‘Btv 온애드’는 방송 서비스와 디지털 사이니지를 결합한 형태로, 이용자는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 여가·복지 프로그램과 교육 콘텐츠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는 별도 조작 없이 원격으로 시청 홍보, 영상회의, 공지사항 등을 편성·송출할 수 있다.

창원시는 해당 서비스를 활용해 인지기능 교육, 치매예방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약 1000명이 참여했다. 합천군은 ICT 기반 감염병 예방 교육에 활용했다. 전북 남원시는 경로당과 행정복지센터에 도입해 지역 행사와 소통 프로그램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월 구독 방식으로 제공되며, 타사 인



SK브로드밴드 ‘Btv 온애드’가 설치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댄스 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한 생생형시 사진. /SKB

터넷 회선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전국 단위 유지보수망을 통해 24시간 상담과 장애 대응도 지원한다. /김서현 기자

/최빛나 기자

ETF도 반도체 베팅... 삼성전자·하이닉스 '투톱' 집중

‘TIGER TOP10’ 총 4098억 유입
자산운용사 관련상품 경쟁 본격화
일부상품 채권 혼합해 안정성 보완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자금이 반도체로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상품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투자자와 자산운용사 모두 ‘반도체 베팅’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25일 코스콤ETF CHECK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상품은 ‘TIGER반도체TOP10’으로 총 4098억원이 몰렸다. 이외에도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2054억원), ‘RISE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1410억원)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지수 추종 아니면 반도체 상품 위주로 자금 유입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증시에서도 서학개미(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들이 이달 들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



ChatGPT로 생성한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집중되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관련 이미지.

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X’ ETF(SOXL, 12억7033만달러)였고, 같은 기간 홍콩 증시에서도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XL2CSOPHYNIX)를 275만달러 사들였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반도체 ETF 상품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

중이 높은 상품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자산운용사들도 ‘반도체 ETF’ 경쟁에 들어선 모습이다.

지난 17일 신한자산운용은 반도체 투톱의 편입 비중을 50% 수준까지 높인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를 신규 상장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25%씩 편입하고 SK

스퀘어를 15% 담는다. 당초에는 두 종목의 노출도를 65%까지 올렸다고 홍보했으나, 다소 과도한 표현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식적으로 정정하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에 몰린 자금은 2054억원으로, 해당 기간 중 4번째로 많은 자금이 들어왔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그룹장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와 전례 없는 공급 제약 속에서도 설비 증설은 단기간에 쉽지 않은 구조”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적 기반의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

반도체 집중상품의 라인업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달 KB자산운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25%씩 담고, 나머지 50%는 단기 국고채에 투자하는 혼합형 ETF인 ‘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을 선보였다. 해

당 상품 역시 국내 채권혼합형 ETF 가운데 최단기간 5000억원을 돌파하며 성과를 보였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도 ‘KODEX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ETF’ 상장을 위한 상품 코드 등록을 마쳤다. 이달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상장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두 운용사 간의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삼성자산운용은 현재 삼성전자와 채권을 혼합한 ‘KODEX 삼성전자채권혼합 ETF’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반도체 투톱을 모두 묶은 채권혼합형 상품은 없다. 상품의 구조가 거의 동일한 만큼 ‘수수료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들의 ETF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흐름을 따라가는 테마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상품 구조와 구성 종목이 비슷한 유사ETF들이 반도체 섹터에서 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투자전 위험 한눈에... 부동산펀드 공시 개편

금감원, 부동산펀드 공시서식 개정
정보 제공·운용사 책임 강화 유도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 과정에서 운용사의 실사 내용과 손실 가능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깜깜이 설계’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는 투자설명서 단계부터 실사보고서와 손익구조, 최악의 손실 시나리오까지 의무적으로 공개되면서 투자자가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부동산펀드의 설계·제조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상품 설계 단계부터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과 운용사 책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운용사는 투자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지 실사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의 보고서뿐 아니라 자체 점검 내역과 내부통제부서의 평가 의견을 함께 공시해야 한다. 해당 내용에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하도록 해 책임 소재도 명확히 했다.

펀드의 손익구조도 보다 직관적으로 공개된다. 부동산 가격 변동과 대출 조건 등을 반영한 손익성과 그래프를 통해 투자자가 손실 가능 구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금리 상승이나 공실률 악화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손실 규모를 가정한 스트레스 시나리오도 의무적으로 제시된다. 배당률이 0%로 떨어지거나

투자원금의 절반 또는 전액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극단적 상황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운용사의 자체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상품 설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자는 실사보고서와 손익 그래프, 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투자 위험을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에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퇴직연금 수익률 차별... 금감원 점검 착수

퇴직연금사업자 준법감시 설명회
사업자 선관주의 의무 이행 당부

#.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김모 씨는 퇴직연금 계좌에 쌓인 돈을 수년째 그대로 두고 있었다.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같은 상품에 재가입했지만,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 뒤늦게 확인해보니 같은 시기 대기업 가입자에게는 더 높은 수익률 상품이 제공되고 있었다.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업계 전반의 관행 점검에 나섰다. 퇴직연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단순 상품 판매를 넘어 ‘수익률 관리’와 ‘가입자 보호’ 중심으로 사업자 역할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퇴직연금사업자 준법감시 설명회를 열고 최근 검사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 사례를 공유하며 사업자들의 선관주의 의무 이행과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는 은행·증권·보험사 등 46개 퇴직연금사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실무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검사 방향과 중점 점검사항도 함께 안내됐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들이 확인됐다. 우선 일부 사업자는 판매 물량이 제한된 고수익 상품을 대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ETF 적립식 도입

적립식 투자 서비스 범위 확대

미래에셋증권은 효율적인 연금 자산 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퇴직연금 ETF 적립식(연금 모으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ETF 적립식 서비스’는 종합계좌와 중개형 ISA, 개인연금 계좌 대상으로 운영됐지만, 이번 출시를 통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까지 범위가 확장됐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은 적립식 투자 서비스 범위를 전 연금 계좌로 확장하며 자산관리 체계의 완결성을 강화했다.

미래에셋증권의 ‘ETF 적립식 서비

스(연금 모으기)’는 가입자가 지정한 종목을 정기적으로 자동 매수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매수 주기(매일·매주·매월)와 금액 또는 수량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최소 신청 금액은 1만 원으로, 소액으로도 자산배분 투자가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영업점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M-STOCK’에서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특히 DC 가입자에게 유용하다. 일시 유입 자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매수하도록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고 매수 평균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매번 직접 주문을 넣어야 하는 수고로움도 덜 수 있다.

또한 ‘포트폴리오 단위 매수’ 기능도 도입해 최대 10개 종목을 하나의 묶음으로 설정해 간편하게 분산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했다. ‘연금 모으기 탐험’ 서비스를 통해 다른 투자자들이 많이 모이는 인기 종목과 실시간 투자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도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매수 시점을 고민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드리고, 더 편리하게 연금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고객을 위해 존재한다”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가입자의 필요를 먼저 읽고 그 목소리에 응답하는 책임 있는 연금 파트너로서 역할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지난 24일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열린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및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세번째부터) 권용우 하랑 대표, 이영성 KICPA 지역투명성위원회 총괄부위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공회, 자립준비청년 금융·재무교육 지원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역투명성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공익법인 하랑(이하 하랑)과 지난 24일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및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

혔다.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돕고, 이들을 지원해온 하랑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허정윤 기자

실무형 수출현장 전문가 200명 육성

산업부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 내달 초 교육기관 선정... 입찰 공고 전국 13곳 특성화·마이스티고 대상 수출기업 필요로하는 청년 인재 양성 1년간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부가 수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무역 인재 양성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보호 무역 기조와 자국 중심주의 확산으로 통상 환경이 급변하면서 실무형 무역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는 4월 초 교육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학교별 교육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6월에는 책임교사 간담회를 열어 사업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6~10월에는 학교별 일정에 따라 무역 실무 및 원산지 교육을 집중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특성화·마이스티고 학생을 대상으로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돼 왔다. 올해는 전국 13개 특성화·마이스티고에서 약 200명을 선발해 1년간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 과정은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 무역 및 해외마케팅 실무 ▲ 원산지 관리·증빙·검증 대응 등 원산지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모의무역 실전 대회에도 참여한다. 또한 관세·물류 등 무역 관련 자격증 취득도 지원해 취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현직 무역 전문가의 멘토링도 제공된다. 수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학교를 방문해 해외 근무 경험과 취업 노하우를 공유하며 진로 설계를 돕는다. 교육 수요자에게는 12월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 및 현지 기업 방문 기회도 제공된다.

산업부는 향후 사업을 단계적으로 고

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성화·마이스티고 중심 교육을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최근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는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 관련 교육도 늘릴 방침이다.

박근오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은 "동 사업은 우리 청년들이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 무역 전문가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1년 뒤 당당한 무역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기업 재직자 대상 FTA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고, 통상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을 누구나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FTA·통상 사이버 아카데미(onkpc.or.kr/fta)'를 통한 온라인 교육을 운영 중이다. 모든 강의는 무료로 제공되며 가입절차 없이도 열린 과정으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농가 AI 솔루션 도입 부담 낮출 것"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영월 찾아 스마트농업 확산·농촌활력 제고 논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25일 강원 영월 소재의 AI 기반 영농 솔루션 도입 농가를 찾아, 스마트농업 확산 및 농촌활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와 농촌창업 기업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일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계기로 마련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송 장관은 현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양한 정책사업을 통해 농가의 AI 솔루션 도입 부담을 낮추고, 유통 현장의 자동화·규격화를 지원하며,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창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생산-유통-가공 각 단계의 혁신을 촉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먼저 AI 솔루션을 통해 온실 내 온·습도 및 토양수분을 실시간 조



절 중인 생애토 농가를 찾았다. 이 농가는 0.5헥타르(ha) 규모의 비닐온실에서 오이와 토마토를 재배하는 곳으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AI 솔루션을 도입했다.

이 솔루션은 온도 급등과 같은 이상 변화를 감지할 경우 휴대전화로 알림을 제공하여 농업인이 쉽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농가는 솔루션 도입 이후 병충해는 전년 대비 20% 줄고, 생산량은 18% 늘었다며 그 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송 장관은 앞으로도 농가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농업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농협이 운영하는 스마트 APC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RFID(무선 주파수 추적 기술), 자동 선택·당도 선별기, 로봇팔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해 상품화 공정을 자동화한 시설을 점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중동전쟁, 국내 전력수급 영향 제한적

기후부 '에너지비상대응반 회의' 기온 상승으로 전력수요 감소 등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 제한적

중동 사태가 그간 전력수급 및 전력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차 에너지비상대응반 회의'를 가동해 서아시아 지역 상황에 따른 에너지 영향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장기화됨에 따라,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날(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자원안보위기 '주의'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신속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지난 2일부터 전력 공기업과 함께 운영해 온 기존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고, 반장을 2차관으로 격상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

비상대응반은 전력 수급 상황 등을 파악하는 에너지상황점검반을 비롯해 에너지 절약을 담당하는 에너지효율대응반, 전력시장 영향을 살펴보는 에너지시장대응반,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 공조를 맡는 국제협력반으로 구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 25일 서울시청 부설주차장 입구에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성된다.

각 대응반은 주요 현황을 보고하고 다음 주부터 실행할 세부 대응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대응반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동 상황이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봄철 기온 상승으로 전력수요가 감소하고 유가 상승이 전력시장의 액화 천연가스(LNG) 가격에 통상 3~6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동 상황 중동 전쟁이 장기화 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고유가

가 지속되거나 가스 도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동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할 방침이다. 핵심 관리 품목은 ▲차량용 요소수 ▲종량제 봉투 ▲발 전용 유류 ▲암모니아수 ▲무수암모니아 ▲요소수 ▲수송용 수소 ▲집단에너지용 액화천연가스 ▲풍력·태양광 핵심 기자재 등이다.

아울러 국민생활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들 품목의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전, 사회에 에너지 절약문화 알린다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 14개 기관에 3800만원 규모 상금

한국전력은 25일 최근 중동발 에너지 위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회 전반의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위해 산업계와 문화계가 참여하는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한전과 4개 기관(대한전기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 협력해 추진한다. 참여기관들은 각 분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참여를 독려하고, 에너지 절약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한전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열어 159개 기업

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그 결과 10.3GWh의 전력을 절감했는데, 이는 발원용 LNG(액화천연가스) 약 1500톤의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양으로 국가 에너지수급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참여 대상은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소속 공연장이다. 참여 신청은 4월 1일~5월 31일까지 대한전기협회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경진대회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전력 절감 실적과 실천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14개 기관을 선정하고, 총 3800만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공, 中서 189만弗 농산업 수출계약

'중 농약·작물보호 박람회' 참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중국 농산업 박람회에 참가해 189만 달러 상당의 수출 업무협약 및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공사는 이달 17~19일 기간 상하이에서 개최된 '2026 중국 농약 및 작물보호 박람회(CAC 2026)'에서 한국관을 운영했다.

행사장에서는 997만 달러(238건)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188만 달러(12건)의 수출 업무협약과 1만 달러(1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중국 정부는 2024년 '식량안보법'을 개정하고 자국 내 식량 생산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농업 전환'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중국 국제 농약 및 작물보호 박람회' 행사장에 마련된 한국관

/농어촌공사

공사는 현지 시장의 두 가지 핵심 수요를 겨냥해, 국내 우수 비료 및 친환경 농자재 기업 20개사로 한국관을 구성했다. 맞춤형 시장 공략으로 K-농기자재는 현지 바이어의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박람회 참가 전 중국 농산업 동향과 진출 전략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강의를 진행하고, 참가 기업 및 해외 바이어를 사전에 연결해 현장에서 수준 높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지난달 설 특수에 유통업체 매출 7.9% ↑

산업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백화점 식품 매출 65% 급증

설 명절 특수와 소비심리 회복 영향으로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백화점은 식품 판매가 급증하며 전체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

산업통상부는 25일 2월 주요 유통업

체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매출은 14.1% 늘었고, 온라인 매출도 3.9% 증가했다. 온라인 매출은 2024년 10월 이후 17개월 연속 오프라인 매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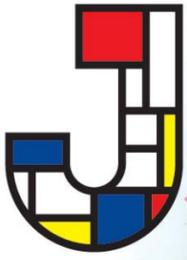
업체별로는 백화점(25.6%)과 편의점(4.0%)이 8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형마트는 15.1% 증가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고, 준대규모점포(SSM)는 0.4% 감소하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백화점은 소비심리 개선과 설 특수 영향으로 전 부문에서 매출이 증가했다. 특히 식품 매출이 65.0% 급증하며 전체 성장세를 주도했다.

대형마트는 설 선물세트와 성수품 판매 증가로 식품 매출이 18.8% 늘며 전체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
JOONGANG
PAINTING
EXHIBITION
2026

2026 중앙 회화 대전

글로벌 아티스트, 꿈을 그린다...

2026 제6회 중앙회화대전 공모전은 출품자의 약력과 수상 경력, 소속 등 모든 정보를 제외하고 오직 작품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공모전입니다. 올해는 '글로벌 아티스트의 꿈'을 주제로 국내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한국 회화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며, 창의적인 역량을 갖춘 역동적인 작가들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전통과 현대, 기성 및 신진작가 간의 예술적 교류를 도모하고, 동시대 회화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추구해 온 중앙회화대전. 장르와 재료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층적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작가분들의 미래, 대한민국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초대합니다.

참가부문: 회화 작품 전체(동/서양화, 구상/비구상)
심사방법: 온라인 예선 접수 후 본선진출작 300점 선별
 → 오프라인 2차심사 진행
작품규격: 30호 F 단일 규격(가로 세로 구분 없이 90.9X72.7cm)
 작품 총 두께 5cm 미만, 액자 없이 캔버스로 제출
온라인 접수: 2026년 3월 9일(월)~6월 19일(금)
1차심사: 2026년 6월 23일(화) | 발표: 2026년 6월 25일(목)
2차심사: 2026년 8월 4일(화) | 발표: 2026년 8월 5일(수)

온라인 출품료: 20,000원 (1인 1점)
국내전시 참여 비용: 300,000원 (전시장 대관, 도록/홍보물 제작, 언론홍보 등에 사용되며, 작품 제출 및 반출료는 작가 개인 부담)
국내전시: 2026년 8월 6일(목)~8월 10일(월) |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특별관
시 상 식: 2026년 8월 10일(월) 오후 2시

문의전화: 02-6743-3303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jpe.gongmojeon.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 JOONGANG PAINTING EXHIBITION

jpe.gongmojeon.com

주최 **The JoongAng** 중앙일보
 주관 **소프소**
 후원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충남도, 방산4사와 손잡고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총력

K-방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충남 방위산업 육성 등 추진
전문인력 수급·연구 인프라 최적

대한민국 국방수도 충남이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글로벌 방산기업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충남도는 24일 국회에서 황명선 국회의원, 논산시를 비롯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주요 방산기업, 충남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K-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충남 방위산업 육성,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과 기업은 방위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신규 사업 분야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체계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상생



방산혁신클러스터 업무협약식.

협력, 지역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등에 힘을 모은다.

이와 함께 국방기술 시험·실증 인프라 구축과 공동 활용, 방산혁신클러스터 등 국가사업 발굴 및 공모 대응, 예산 확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이번 협약이 방위사업청의 '2026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논산시 내동·연무읍 일원에 2030년까지 499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기반 국방로봇 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이달 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방산 특화 연구·시험·실증인프라 구축, 국방 신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창업 및 민수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은 충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K AIST,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양대 등 연구기관과 참여 기업들이 협력한다.

충남도는 논산이 방산혁신클러스터 최적지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방대학교와 건양대 등 교육기관을 통해 AI·로봇 분야 전문 인력 수급이 가능하고, 인근 국방과학연구소와 대덕연구단지 등 연구 인프라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와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예정돼 있어 연구개발부터 실증, 생산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첨단 방산기술이 실전 무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증 환경과 정밀 제조 기반이 필수"라며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통해 전국 최대 규모의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논산을 AI 국방로봇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서울·부산·인천교육청

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서울시교육청이 부산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을 공동 운영한다.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를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3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구축한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미래형 평가 체계 안착에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동 운영하는 시스템은 서울시교육청이 개발한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채움AI'다. 이 시스템은 서·논술형 평가의 자동 채점을 지원하는 도구로, 교과별 맞춤 채점과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이현진 기자

부산시

광안대교, '어스아워' 캠페인

부산의 야경 명소 광안대교가 기후 위기 대응 메시지를 담아 잠시 불을 끈다.

부산시설공단은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주관하는 글로벌 환경 캠페인 '어스아워(Earth Hour)'에 동참해 오는 28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간 광안대교 경관 조명을 전면 소등한다.

어스아워는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가 동시에 불을 끄며 기후 위기 대응 의지를 표현하는 국제 행동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서울시, 2031년까지 역세권 325곳 직·주·락 활성화

장기전세주택 공급 규모 확대 간선도로변, 용도 상향 허용

서울시가 역세권 325곳 전체를 교통 거점을 넘어 일자리·주거·문화·생활 SOC가 결합된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2031년까지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환승역 고밀 개발,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 개발까지 포함한 입체적 도시공간 재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 개발 대상지 325개역 전체로

서울시는 기존 사업은 확대·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추가 발굴해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역세권활성화사업의 개발 대



홍제역 (서대문구 홍제동 298-9 일대) 조감도. /서울시

상지를 넓히고 공공기여 비율은 낮춰 사업성을 높인다. 지금까지는 중심지 안에 있는 153개 역에서만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서울 전체 325개 역세권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향후 5년간 100곳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11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증가 용적률의 50%에서 30%로 낮춘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민

간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 장기전세주택 입지범위 확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입지와 사업 속도를 중심으로 공급 체계를 손질한다.

대상지는 기존 역사와의 거리 기준 350m에서 500m까지 확대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도 포함한다. 또 '사전검토'와 '계획검토'를 통합해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은 기존보다 5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127곳 12만호에서 366곳 21만2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환승역은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 방식으로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 서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35곳의 신규 대상지를 발굴해 업무·상업·주거·문화시설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참여를 늘리기 위해 오는 6월 대상지 선정 공모도 추진한다.

◆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 용도 상향

서울시는 역세권뿐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을 대상으로 한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도 새로 도입한다.

이 사업은 청년창업·주거·상업·생활시설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해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공간 격차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 상향을 허용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설도 함께 공급한다.

서울시는 향후 5년간 60곳을 선정해 개발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hji@

나주시, 직류 전력망 실증센터 구축

총사업비 78억8000만원 투입 AC 한계 보완·분산형 전원 확대

전남 나주시가 정부의 차세대 전력망 구축 정책과 전라남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25. 11)에 발맞춰 직류 기반 전력 인프라 구축에 나서며 에너지 신산업 거점 도시로 도약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R&D' 사업의 일환인 '미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직류 기반 중전압 전력망(MVDC) 실증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나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한국전기술연구원,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남테크노파크도 공동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기술 개발과 실증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전력망 구축 정책과 연계해 기존 교류 중심(AC) 전력망의 한계를 보완하고 분산형 전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반 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총 21개월 동안 추진되며 총사업비 78억8000만원(국비 38억 8000만원, 지방비 40억원)이 투입된다.

나주시는 2026년 5월 신규 중전압 직류(MVDC) 실증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울산시, '고래수' 품질관리에 1525억 투입

정기점검·송수관로 복선화

울산시가 올해 총 1525억원을 들여 수도물 '고래수'의 품질 관리와 공급 안정성 강화에 나선다. 기후 위기에 따른 상수원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노후 시설 개선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시에 따르면 수질 관리는 법정 60개 항목과 감시 173개 항목 등 총 233개 항목에 대해 정기 점검을 진행하고, 미세 플라스틱 등 미규제 신종 물질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회야계통과 천상계통(1.0km)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추진하고, 유수율이 낮은 블록 52개소에 대한 밸브 조사와 기능 진단도 진행한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비상 식수대응 체계도 갖는다. 총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해 천상정수장 내 '고래수병입센터'를 구축, 오는 4월 완공 예정이다. 연간 50만 병 생산이 가능한 자동화 설비를 통해 단수 등 비상 상황에 긴급 식수를 공급하고 폭염 취약계층 지원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디지털 전환도 병행된다. 올해까지 스마트 원격점검기를 누계 3만 560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모바일 알림톡·이메일 전자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자동납부 추가 출금' 기능도 새로 도입한다. 아울러 특·시 최초로 AI 기반 채팅로봇 '물동이'와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24시간 민원 상담과 요금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경남도

지방정부 적극행정 최우수 기관

경남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우수기관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수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개선, 활성화 노력, 이행 성과 등 5대 항목 18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경남도는 실행 계획 수립부터 성과 보상까지 적극행정 추진 체계 전반에서 고른 점수를 받았다.

현장 밀착형 정책이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의령군 내 농촌마을 239개소를 전수 조사해 만든 '농촌마을 골든타임 길라잡이'는 소방차 현장 도착 시간을 40% 이상 단축하는 성과를 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하동군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

하동군이 오는 27일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병원·시설 입소 없이 살던 곳에서 의료·복지·주거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 돌봄 체계를 지역에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8억 4000만원으로, 1200여 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된다. 사업은 일상생활·보건의료·주거·건강관리 등 5개 분야 15개 세부 사업으로 짜여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 외자와 퇴원 환자 등 기존 복지망 바깥에 놓인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짧아진 봄, 빨라진 소비... 백화점, '체험형 세일' 승부수

콘텐츠로 소비 점점 다변화

롯데, 고메·와인·웨딩 체류 확대
신세계, 와인·팝업 관광객 공략
현대, 전시·팝업 체험 소비 강화

국내 주요 백화점 3사가 일제히 봄 정기세일에 돌입하며 소비 수요 선점 경쟁에 나섰다. 짧아진 봄 시즌과 야외활동 증가 흐름을 겨냥해 할인 혜택은 물론 미식·체험·팝업 등 콘텐츠를 결합한 '복합형 집객 전략'이 두드러진다.

먼저, 롯데백화점은 오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전 점에서 '스프링 세일'을 진행한다. 약 360개 브랜드가 참여해 패션 상품은 최대 50%, 잡화·주얼리는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특히 '고메워크', '와인워크', 웨딩페어,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행사를 결합해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심 유원지 인근 9개 점포에서는 피크닉 수요를 겨냥한 '피크닉 세트'를 선보이고, 와인·주류는 최대 80% 할인한다. 웨딩페어에서는 '웨딩 마일리지' 2배



롯데백화점 본점 8층 리빙관에서 상품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 /롯데쇼핑

적립 혜택과 함께 대형 구매 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도 마련했다.

신세계백화점은 같은 날부터 내달 12일까지 '온리 신세계 세일'을 열고 약 400개 브랜드 상품을 선보인다. 시즌으로 프 및 한정 특가 상품을 최대 70% 할인하는 것이 특징이다. 동시에 연 2회 최대

규모 주류 행사인 '신세계 와인 페스타'를 통해 와인·위스키·전통주를 한데 모아 판매한다. 여기에 팝업스토어, 골프 체험 행사, 키즈 체험형 콘텐츠 등 점포별 특화 이벤트를 강화하고, 앱 기반 친구 초대 이벤트를 통해 디지털 고객 유입도 확대한다. 외국인 수요를 겨냥한

'글로벌 쇼핑 페스타'도 병행해 방한 관광객 소비까지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현대백화점은 27일부터 4월 12일까지 '더 세일'을 진행하며 단순 할인에 그치지 않고 체험형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운다. 약 200개 브랜드가 참여해 패션·잡화·스포츠 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가운데, 점포별로 골프대전, 나이키 할인전, 베이커리 페어 등 시즌 맞춤형 행사를 병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체험형 소비'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판교점에서는 대형 베어벌룬 전시를 통해 봄 시즌 포토 스폿을 조성하고, 현대어린이책미술관에서는 신규 전시 '세상의 눈'을 선보이며 가족 단위 고객 유입을 노린다.

MZ세대를 겨냥한 콘텐츠도 강화했다. 더현대 서울에서는 버추얼 아이돌 '오위스(OVIS)' 데뷔 기념 팝업스토어와 미디어 전시를 동시에 운영해, 실제 공간과 디지털 콘텐츠를 결합한 몰입형 체험을 제공한다. 음악 감상과 굿즈 판매를 결합한 이번 팝업은 단순 쇼핑을 넘

어 '콘텐츠 소비형 공간'으로서의 백화점 역할을 강조하는 사례로 꼽힌다. 현대백화점은 이처럼 전시·팝업·체험 요소를 결합해 쇼핑 목적 방문을 '경험 목적 방문'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봄 정기세일을 단순 할인 경쟁이 아닌 '경험형 소비' 확대의 장으로 보고 있다. 기후 변화로 계절 수요가 짧아지는 가운데, 쇼핑과 외식·문화 체험을 결합해 고객 방문을 유도하는 전략이 공통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류 행사, 피크닉 상품, 웨딩 프로모션 등 시즌 맞춤형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우며 소비 접점을 다변화하는 모습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봄 시즌이 짧아질수록 고객의 구매 결정 속도는 빨라지는 만큼, 할인 혜택과 함께 체험 요소를 결합한 '목적형 방문' 유도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백화점 세일은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롯데마트·슈퍼, 해외서만 팔리던 '순라면' 한국 상륙

순한맛·건면 등으로 가족·MZ 공략 차별화 상품으로 집객 경쟁력 강화

롯데마트·슈퍼가 해외 여행지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던 K-라면을 한국에 들인다.

롯데마트·슈퍼는 26일 '농심 순라면(4입)'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순라면'은 미국·유럽·중동 등 해외 시장에서만 판매되어 온 수출 전용 제품이다. 특히 '신라면', '짜파게티' 등 유명 제품과 함께 농심의 글로벌 판매 상위 5위권에 속하는 베스트셀러로 국내 미출시라면 가운데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순라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농심 순라면.

/농심

있는 순한맛이 특징이다. 채소와 버섯을 활용해 국물과 건더기 전반에 걸쳐 깔끔

한 풍미를 구현했으며, 이번 국내 출시 제품에는 건면을 적용해 칼로리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식감을 강화했다. 롯데마트·슈퍼는 매운 맛 중심의 라면 시장에서 자극 없는 담백한 맛으로 가족 먹거리 수요를 겨냥하는 한편, 비건 인증을 기반으로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MZ세대까지 폭 넓게 아우른다는 전략이다.

해당 상품은 롯데마트·슈퍼 창립 행사 '메가톤' 개막에 맞춰 단독 선판매를 시작한다. 해외 여행이나 직구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인기 상품을 가장 먼저 선보여, 매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단독 선판매 기념 행사도 마련했다. 내달 8일까지 '순라면'을 2개 이상 구매 시 10% 할인을 제공하며, 4일부터 5일까지는 해당 상품을 포함한 봉지라면 전 품목에 대해 행사 카드 결제 시 2+1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영주 롯데마트·슈퍼 조미대용식품팀 MD(상품기획자)는 "해외 시장에서 검증된 글로벌 베스트셀러를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만큼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롯데마트·슈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차별화 상품을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뚜기

송도 라면박람회 참가 '나만의 진라면' 체험존

�뚜기가 26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라면박람회'에 참가한다고 25일 밝혔다.

'2026 대한민국 라면박람회'는 K-라면의 글로벌 위상을 알리는 국내 유일의 라면 전문 박람회로 제조사·유통사·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복합 전시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뚜기는 '나만의 진라면 만들기' 체험존을 통해 각자의 취향에 맞는 진라면을 직접 만들어보는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진라면의 섬세한 매운맛 단계와 어떤 토핑과도 잘 어울리는 특징을 바탕으로 단순 체험을 넘어 진라면의 브랜드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신원선 기자

CJ제일제당, 냉동김밥 대형화 시동

진천에 업계 첫 자동화 생산라인 구축

CJ제일제당이 글로벌 냉동김밥 사업 대형화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충북 진천 CJ블로썸 캠퍼스에 식품업계 최초로 냉동김밥 자동화 생산시설을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글로벌 수요 증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

냉동김밥 생산라인은 속재료 투입부터 김밥 커팅, 트레이 담기 등 전 공정을 자동화한 것이 특징이다.

맛품질도 한층 강화했다. 냉동밥 취반(쌀을 씻고 물을 맞춰 밥을 짓는 과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품별 최적의 밥알 식감과 윤기 있는 외관을 구현했다. 냉동김밥에 최적화된 급속 냉동 기술로 유통·보관 과정에서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K-푸드 확산전

략의 일환으로 2023년 '비비고 냉동김밥'을 출시했다. 출시 이후 글로벌 누적 판매량 800만개를 돌파했다.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약 130%에 달한다. 현재 미국, 유럽, 영국, 호주, 일본 등 25개국에서 불고기, 제육, 아재, 비빔밥, 감치치즈, 참치마요 등 총 6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진천 생산거점 확보로 글로벌 사업 확장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유럽, 호주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 미국 현지 그로서리 스토어(Grocery Store) 입점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단순한 설비 확보 차원을 넘어 K-푸드 영토 확장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비비고 김밥을 대표 'K-김밥'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삼양식품, 명동서 불닭 팬덤 띄웠다

명동사옥 첫 개방...5일간 8000명 방문

삼양식품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서울 명동 사옥 1층 로비에서 운영한 브랜드 체험형 팝업스토어 'House of Burn(하우스 오브 번)'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명동 사옥 이전 후 내부 공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사례로 운영 기간 내내 글로벌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5일간 총 8000여 명의 방문객이 현장을 찾아 불닭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접 경험했으며, 특히 글로벌 팬들 사이의 자발적인 입소문으로 오픈 전부터 대기 행렬이 이어지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Make Life Spicy!' 콘셉트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글로벌 팬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브랜드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하는 김정수 부회장의 아이디어를 바탕



삼양식품 명동 사옥 팝업스토어.

으로 마련됐다. 삼양식품은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관광객들이 여행 일정 중 편안하게 머물며 재정비할 수 있는 라운지와 파우더룸을 운영하고 무료 생수를 제공하는 등 고객 중심의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불닭볶음면, 까르보불닭 등 주요 제품을 시식하며 브랜드 특유의 역동적인 개성을 체험했다.

/신원선 기자

남양유업

첫 대리점 상생회의 동반성장 협력 강화

'건강한 시작' 남양유업이 24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2026년 첫 '대리점 상생회의'를 개최하며 상생 협력 기조를 이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흑자 전환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업 현장의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김승연 남양유업 대표 집행임원 사장을 비롯해 본사 주요 관계자, 채원일 전국대리점협의회장 등 전국 대리점 대표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협력사 역량 강화를 위한 '상생 파트너십 교육'도 정례적으로 운영 중이다.

/신원선 기자

K-뷰티, 화장품 넘어 헤어까지... 북미 시장 존재감 확대

LG생건 '닥터그루트' 세포라 입점 애경 '케라시스', 월마트서 판매 아모레, 브랜드 '미장센' 재정비

K뷰티의 영토 확장이 기초화장품을 넘어 헤어케어 시장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국내 뷰티 기업들이 북미 최대 뷰티 편집숍과 대형 마트 체인에 잇따라 깃발을 꽂으며 'K샴푸' 전성시대를 예고한다.

25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이 북미 시장에서 고급 두피 관리 브랜드 '닥터그루트'를 선보이며 브랜드 입지 확장에 나선다. 닥터그루트는 오는 28일 세포라 온라인몰 입점을 시작으로 8월에는 미국 전역에 위치한 400여 개 오프라인 매장으로 진출한다. 세포라는 북미 시장 내 주요 대형 유통사로 꼽히는 글로벌 뷰티 편집숍이다.

닥터그루트는 브랜드 주력 제품인 '스칼프 리바이탈라이징 솔루션' 제품군을 포함해 총 18종을 내놓는다. 탈모 증상 관리를 위한 제품부터 머릿결 등 전반적인 모발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고객 수요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세



'닥터그루트'

/LG생활건강

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력 품목 '헤어 티크닝 샴푸'의 경우, 임상시험에서 해당 제품 사용 2주만에 탈락 모발 수 82.2% 개선 효과를 입증한 기능성 제품이다. 이러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미국 최대 온라인 채널 아마존이 진행한 프라이머데이 행사에서 모발 재생 샴푸(헤어 리그로스 샴푸) 부문 2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닥터그루트는 LG생활건강이 올해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네오뷰티' 사업부의 핵심 브랜드다. LG생활건강은 지난

해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생활용품 사업부에서는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생활용품 사업부 매출은 2조2347억원으로 전년 대비 3% 늘었고, 해당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 수준이다. 같은 기간, 생활용품 사업부 영업이익은 1263억원으로 3% 커졌다.

애경산업도 샴푸, 바디워시 등 브랜드 다변화 전략을 본격화하며 북미 시장을 공략한다.

애경산업은 최근 미국 35개 지역에



프리미엄 헤어케어 브랜드 '케라시스' /애경산업

위치한 월마트 390여 곳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에서 프리미엄 헤어케어 브랜드 '케라시스' 판매를 시작했다. 앞서 미국 월마트에서 퍼스널센트 바디케어 브랜드 '립센트', 토털 바디케어 브랜드 '샤워메이트' 등도 공개한 상황이다.

애경산업 역시 생활용품 사업에서 성장동력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2025년 기준 애경산업 전체 매출에서 생활용품 사업 매출이 차지하는 비

중은 약 60%인 가운데, 해당 매출은 전년 대비 4% 커져 4285억원이다.

아모레퍼시픽의 헤어&뷰티 관련 브랜드도 최근 재단장을 거쳤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10월 미장센을 토털 헤어케어 브랜드로 완성했다. 2000년 헤어 컬러링 브랜드에서 시작해 25년 동안 지속 성장한 성과다.

대표적으로 미장센 인기 품목 '페펙트 세럼'은 국내에서는 13년 연속 헤어 에센스 오프라인 매출액 1위, 누적 판매량 1억 병을 돌파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 아마존 헤어스타일링 오일 부문에서 1위 제품으로 주목받았다.

최근에는 K뷰티 대표 유통사인 CJ 올리브영의 트렌드팻 바이 올리브영N 성수에서 '미장센 퍼펙트 세럼 팝업'도 운영해 MZ 소비자를 공략한다.

국내 뷰티 업계 관계자는 "북미 시장에서 K뷰티는 특정 카테고리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 전반의 '퍼스널 케어'로 성장함으로써 주류 트렌드로 시장 가능성을 넓히려는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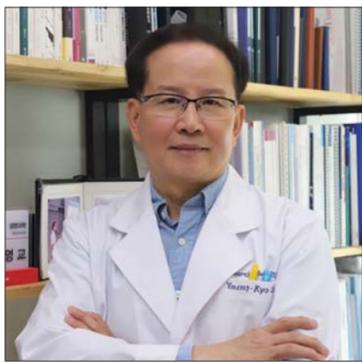
세포 죽음 결정하는 단백질 메커니즘 발견

한국생명연서영교 박사 연구팀 패혈증·바이러스 대응 단서 기대

그동안 콜레스테롤 조절 기능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단백질이 사실은 세포 자살을 유도해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 노화융합연구단 서영교 박사 연구팀은 우리 몸 속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단백질인 'SREBP-2'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평소와 달리 세포를 죽게 만드는 신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SREBP-2는 원래 세포 안에서 콜레스테롤 형성을 돕는 유전자 조절 단백질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포 사멸(apoptosis) 과정을 통해 몸 전체를 보호한다. 이 과정은 감염된 세포나 손



연구책임자 서영교 박사.

상된 세포가 주변 조직에 더 큰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제거하는 중요한 생명 방어 전략이다. 하지만 세포가 언제, 어떤 신호에 의해 이러한 세포 자살을 시작하는지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콜레스테롤 조절 기능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단백질 조각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새로운 신호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세포 내부 단백질의 일부가 세포 밖으로 분비되어 다른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이는 패혈증·염증·바이러스 감염 등 다양한 질환에서 세포 사멸과 면역 반응을 이해하고, 치료 표적 발굴과 신약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책임자인 서영교 박사는 "이번 연구는 콜레스테롤 대사를 조절하는 단백질이 체내 에너지 대사 조절뿐만 아니라, 세포의 생존과 죽음을 결정하는 신호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 감염 질환이나 염증 질환에서 이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추가 연구를 통해 규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CJ바사, 장내 미생물-피부 상관관계 연구

뷰티온클리닉과 MOU 체결

CJ바이오사이언스는 뷰티온클리닉과 장내 미생물 검사 서비스 '깃 인사이드(GUT INSIDE)'를 기반으로 한 '피부 타입별 장내 균총 상관관계'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피부 타입별 모집군의 장내 미생물 변화를 관찰하고, 이를 활용한 공동연구 분석 방안을 모색한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뷰티온클리닉에 '깃 인사이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 뷰티온클리닉은 환자 관리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장내 미생물 분석을 활용해 의료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장내 미생물 검사를 실제 임상과 연계해 '피부-장 축(Skin-Gut Axis)' 상관관계의 과학적 근거를



CJ바이오사이언스 윤상배 대표(오른쪽)와 뷰티온클리닉 돌곶이역점 황혜정 원장이 24일 피부 타입별 장내 균총 상관관계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축적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특히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장내 미생물과 피부 건강 간의 연관성을 본격적으로 규명하는 첫 사례로, '깃 인사이드'의 피부 웰스케어 솔루션으로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세경 기자

광동제약, 프리미엄 건강즙 브랜드 선배

'광동거북원' 론칭하고 시장 공략

광동제약은 건강즙 제조 전문 자회사 '광동건강원'이 프리미엄 브랜드 '광동거북원'을 론칭하고 신제품 2종(사진)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출범한 광동건강원은 보양 원료를 활용한 건강즙의 제조와 판매를 전담하는 광동제약 100% 출자 자회사로, 제조 전문성 강화와 운영 효율화를 목표로 설립됐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광동거북원 침향흑염소', '광동거북원 녹용철갑

상어' 2종이다. 흑염소의 육골과 철갑상어의 어육·어골을 진하게 우려낸 재료 본연의 영양을 온전하게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두 제품 모두 국내산 6년 근 홍삼을 포함한 13가지 전통 소재를 기반으로 하며 '침향흑염소'에는 귀한 원료로 알려진 침향유, '녹용철갑상어'에는 광동제약 특허 원료인 '참당귀·녹용·황기복합추출물분말'을 각각 더해 원재료를 풍부하게 구성했다.

특히 광동거북원은 제품을 미리 생산해 두지 않고 주문 즉시 생산하는 '오더메이드(Order-made)' 방식을 도입해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요 제조 공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고객에게 공유해 생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표준화된 제조지시기록서를 기반으로 원료 선별부터 전 제조 과정에 걸쳐 맛과 품질을 일관되게 관리한다.

제품은 4월 1일 정식 출시되며, 현재 광동거북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 중이다. /이세경 기자

삼성바이오, 글로벌 수주 확대 나선다

11년 연속 '디캣 위크 2026' 참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디캣 위크(DCAT Week) 2026'에 참가해 글로벌 수주 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디캣 위크는 1890년 뉴욕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시작된 글로벌 제약 및 바이오 네트워킹 행사다. 디캣 협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참가자의 90% 이상이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 간 파트너십 논의에 최적화된 행사로 평가받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열리지 않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11년 연속으로 디캣 위크에 참가해 왔다. 올해도 행사장 메인 위치에 전용 미팅룸을 마련하고 글로벌 제약사들과 총 50건 이상의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존 림 대표도 이번 행사에 직접 참석해 업계 주요 인사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한다. 존 림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알리고 실질적인 계약 체결과 신규 고객 확보로 이어지는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에 주력한다.

/이청하 기자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동서식품, 음악·바둑 등 문화예술분야 사회공헌 활발

매년 지역시민 대상 무료 클래식 공연 27년간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후원

동서식품은 '생활 속에 향기를 더하는 동서식품'이라는 기업 슬로건 아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음악, 바둑 등 국내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통해 삶의 향기를 나누고 있다.

동서식품은 창립 40주년을 맞은 2008년부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돕기 위해 '동서커피클래식'을 개최하고 있다. 동서커피클래식은 매년 한 도시를 찾아 지역 시민들을 위해 개최하는 무료 공연이다. 제1회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춘천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해당 지역 오케스트라 및 유명 음악가들과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관람객 수는 총 2만여명에 달한다.

가장 최근에 열린 제15회 동서커피클래식은 지난해 11월 12일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개최됐다. 총 1300



제27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개막식에서 대회 관계자와 참가 기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서식품

여명의 관객이 참여한 가운데 지휘자 백진현이 이끄는 대구시립교향악단과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소프라노 이해원, 카운터 테너 최성훈, 테너 존 노 등 국내 유수의 음악가들이 참여했다.

동서식품은 '맥심 사랑의 향기'를 통해 유소년 오케스트라에 꾸준한 문화자산을 후원하고 있다. 동서식품의 대표적인 메세나 활동인 맥심 사랑의 향기는 2008년 부산 소년의 집 관현악단을 시작으로 18년간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

오케스트라에 새 악기와 물품을 지원하고 연주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맥심 사랑의 향기는 대구서부초등학교를 수혜처로 선정해 약 4000만원 상당의 팀파니 등 새 악기와 음악 교육 기자재를 전달했다.

또, 동서식품은 지난 27년간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을 후원하며 국내 바둑문화 발전과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은 바둑 프

로기사 9단계에만 참가 기회가 주어지는 권위 있는 기전이다.

올해 개최된 제27회 맥심커피배는 지난 1월 첫 대국을 시작으로 32명의 국내 최상위 기사들의 수준 높은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결승전만 남아있는 현재, 랭킹 1위 신진서 9단을 꺾고 최절정의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박정환 9단이, 여덟번의 출전 끝에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한 랭킹 3위 변상일 9단과 우승을 두고 맞붙을 예정이다. 우승자에게는 우승 트로피와 함께 상금 7000만 원을, 준우승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000만 원을 수여한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매년 음악, 바둑 등 여러 문화예술 분야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향기로운 나눔의 가치를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BNK부산은행, 국민성장펀드 선제 대응

BNK부산은행은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와 '국민성장펀드 대응 및 지역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성주 BNK부산은행장이 업무협약서를 살펴보고 있다. /BNK부산은행



셀트리온-고바이오랩, 라이선스 인 계약

셀트리온은 국내 바이오 신약개발 기업 고바이오랩과 장 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3종에 대한 라이선스 인(License-in)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진석 경영사업부 대표이사(오른쪽)와 고바이오랩 고광표 대표이사(왼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셀트리온

CJ, 소수민족·학생 등 교육 기회 확대

3년간 약 50만달러 지원 예정

CJ는 베트남 소수민족과 소녀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베트남 소녀교육 3차 프로젝트'를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

CJ는 '지역사회와 협력·상생'이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2014년 유네스코와의 파트너십 이후 2019년부터 베트남 소수민족과 소녀의 교육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3차 프로젝트는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Science·Technology·Arts and Design·Mathematics)을 뜻하는 STEAM 분야의 숙련 인재 수요가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기획됐다. 교원 양성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전국 단위로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교육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호치민시와 까오방(Cao Bang)성의 9개 중·고등 사범학교

를 거점으로 학생·교사·교원양성기관·교육 정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3년간 운영되며 CJ는 약 50만 달러(약 7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민희경 CJ사회공헌 추진단장을 비롯해 주베트남 유네스코, 베트남 교육훈련부, 베트남 평생교육원, 하노이국립교육대학교 등 주요 관계자와 교사, 학생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 CJ문화재단 인디 뮤지션 지원 사업 '튠업(TUNE UP)' 24기 뮤지션 범진과 베트남 가수 루옹 비흐 흐우가 축하공연을 선보이며 프로젝트 참여와 관심을 유도했다.

민희경 CJ사회공헌추진단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3차 프로젝트에서는 교육 모델을 보다 널리 확산해 더 많은 소녀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미래를 이끄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쁘랭땅에서 올레드 TV 만나보세요"

LG전자 내달 27일 꽃 테마 특별전시

LG전자가 미국 뉴욕의 명품 백화점 '쁘랭땅(Printemps)'에서 아트 콘텐츠 감상을 통해 LG 올레드 TV의 압도적 화질을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

LG전자는쁘랭땅 백화점 오픈 1주년을 맞아 오는 4월 27일(현지시간)까지 진행되는 기념전에서 파트너로 초청받아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

다. 이번 전시에서 LG전자는 LG 올레드 TV를 통해 '꽃'을 테마로 한 작가 4명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LG전자는 이번 전시와 함께 LG TV의 아트 콘텐츠 서비스인 'LG 갤러리 플러스'에 뿌랭땅 특별관을 운영한다. LG전자 스마트 TV 플랫폼 webOS를 통해 LG 갤러리 플러스에 접속하면 이번 특별 전시에 참가한 아티스트들의 디지털 아트 30점을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차현정 기자

중진공, 'CEO명품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세무·법률지식 등 경영해법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대상 실전 중심 교육과정인 '2026년 CEO명품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25일 중진공에 따르면 CEO명품아카데미는 2009년부터 전국 6개 연수원에서 5000명 이상의 중소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왔다.

올해부터는 개편을 통해 '실전대응'

역량과 '네트워크' 강화에 더욱 중점을 둘 예정이다. 기존 교육 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AI 및 경제 분야 전문가와 함께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 인사이트 제공 ▲심리·예술 등 인문학 과정을 통한 전략적 사고 함양 ▲중소기업 맞춤형 세무·법률지식을 통한 통찰력 강화 등 경영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경영해법'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재경경제부 ◇국장급 인사 ▲국고정책

관 허승철 △개발금융국장 강운진
◆메트로신문 전북지사 △지사장 조계철
△본부장 최지영

오늘의 날씨

3월 26일(목)
음력: 2월 8일

수도권 날씨
7 ~ 19°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여경협, 여성기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홍보관 운영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여성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추가로 돕는다.

여경협은 25일부터 27일까지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여성기업공동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조달 전시회인 이번 엑스포에서 여경협은 별도의 공동

홍보관을 구성해 기술력을 갖춘 우수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와 실질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관에는 ▲신창우레탄 ▲나보로스 ▲투겟로컬 ▲코리아에너지스 ▲지 에스씨글로벌세이프 ▲고레코리아 ▲에코루미 ▲유시스 ▲송연돌봄컨설팅 ▲온기코퍼레이션 등 총 10개 여성기업이 참가하여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김승호 기자

크래프톤

'AI R&D 해커톤' 운영

크래프톤은 AI 연구개발 인재 발굴을 위한 'AI R&D 해커톤' 개최를 알리고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공, 나이, 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가자는 글로벌 AI 연구기관 수준의 문제를 제한된 시간 내 해결하며 문제 해결 능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검증받는다.

총 상금은 900만원 규모다. 상위 10명에게는 채용 전형 일부를 면제하는 패스트트랙 기회도 제공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고유가에 쏠린 어둡서니 공포의 실상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우리나라 사전에 '어둡서니'란 말이 있다.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헛것을 어둡서니라 한다. 그런데 공포심으로 바라보면 헛것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지금 원유가 상승이 필자에겐 우리 경제에 어둡서니처럼 보인다. 어둡서니 경제에서 벗어나려면 두 가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하나는 원유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언제 끝날 가에 대한 예측이다. 다른 하나는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분석이다.

지난 2월 26일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전날 배럴당 65.21달러이던 두바이산 유가는 21일째를 맞는 3월 20일 134.07달러를 기록했다. 미국과 이란과의 협상기대감과 양측의 공격과 대응 수위에 따라 유가는 춤을 추듯 오르고 있다.

전쟁은 언제쯤 끝날 것인가? 전쟁당사자인 미국을 보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전쟁비용이 늘어

가고, 사상자의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어떻게든 전쟁을 빨리 종료해야만 한다. 이런 출구전략으로 거론되는 근거의 하나로서 이란의 원유 수출금지이자 저장소인 하르그섬을 미국이 조만간 점령할 것이라던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하르그 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90% 정도를 담당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이란의 아킬레스건 확보로 종전 협상에 우위를 가지려 할 것이다.

반면 이란의 공중과 해상에 대한 통제권 상실에도 불구하고 항전 의지의 지속, 표명, 호르무즈 봉쇄위협, 아랍 내 인접 산유시설에 대한 간헐적인 미사일 공격 등은 미국과의 전쟁 장기화 우려를 높이면서 유가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전쟁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지난 3월 21일 주말에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상봉쇄를 풀지 않으면 이란 내 발전시설 폭파로 맞대응할 것을 밝혀, 겉으로는 전쟁이 격화 조짐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미국과 이란은 각기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종전 명분과 준비에 대한 보상 등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출구전략을 찾으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유가 상승세가 우리 경제에서

물가상승, 경제성장률 하락, 경상수지 악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유가가 10% 상승하는 경우, 분석기관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물가상승률은 0.1%포인트(p)에서 0.2%p 범위로 상승한다. 경제성장률은 0.1%p에서 0.2%p로 하락하게 된다. 3월 20일 두바이 유가수준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유가 상승률은 105.6%로서 배 이상이 된다. 그러면 유가 상승에 의한 물가상승률은 거의 1%에서 2% 오르고, 경제성장률도 1%에서 2%로 하락한다. 또한, 산업연구원 3월 자료에 따르면, 유가 10% 상승이 국내 제조업 전체의 생산비용 0.71%p를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제품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줄어들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기업은 진퇴양난에 빠진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참고할 사항이지 이에 맹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쟁 출구전략이 모색되는 현실에서 고유가가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 가정은 어둡서니에 의한 두려움으로 비유될 수 있다. 경제는 심리적인 면이 적지 않다. 정부는 전쟁 지속 여부와 이에 따른 유가수준별 시나리오를 분석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냉정하게 가동해야 한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시장을 움직인 리더십, 남은 과제는



기지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하게 밀어붙인 증시 부양 드라이브는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줬다. 단기적인 지수 상승보다는 시장 체질 개선에 집중한 조치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됐고,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은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현실화했다. 정책 의지가 투자심리를 자극하며 지수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상승장의 배경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 시장 스스로의 힘이라기보다, 정책이 방향을 제시하고 리더십이 속도를 끌어올린 '리더십 장세'의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

다. 정은보 이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속도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거래시간 연장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빠듯한 일정으로 인해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시행 일자가 조정됐지만, 이 과정에서 시장의 관심과 논의는 확대됐다. 다만 연기된 일정이 실제 현장에서 무리 없이 작동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문제는 속도다. 강한 리더십은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를 앞당기는 힘이 있지만, 그만큼 시장이 감당해야 할 부담도 커진다.

1979년 미국의 '볼커 쇼크'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는 기준 금리를 연 20%까지 끌어올렸다. 이러한 초강력 긴축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동시에 경기

침체라는 큰 대가를 남겼다. 결국 강한 정책은 결과를 만들지만, 그 비용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최근에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재고착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볼커식 긴축' 재현 가능성이 언급된다. 이는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다시 빠르게 위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지금의 상승장이 리더십에 의해 촉발된 만큼, 지속 가능성 역시 리더십의 운용 방식에 달려 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국면일수록 정책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된다. 속도에 가려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리더십 장세'는 성과로 남을 수도,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증시는 이미 응답했다. 이제는 그 리더십이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godhe@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6일 (음 2월 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거주문제로 마음 고생이 따릅니다. **60년생**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나 갈 곳은 없었습니다. **72년생** 남과의 조화가 나쁘고 고독합니다. **84년생** 불안한 운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 49년생** 신분에 걸맞은 소망은 성취되는 시기입니다. **61년생** 많은 것을 보고 배울 기회가 될 것입니다. **73년생** 한 발 물러가는 것도 좋습니다. **85년생** 점점 운기가 왕성해 지는 형국입니다.
- 50년생** 머리를 쓰고 신경을 쓰는 일이 많았습니다. **62년생** 아랫사람의 고민을 잘 들어주세요. **74년생**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날입니다. **86년생** 새로운 일은 잠시 미뤄다가 시작하세요.
- 51년생** 아주 좋은 시기를 만났습니다. **63년생** 과거에 실패했던 일을 다시 한번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75년생** 운전을 주의해야 합니다. **87년생** 용돈이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 52년생** 질투를 받아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64년생** 흐뭇하고 만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76년생** 주기가 불안해집니다. **88년생** 이성문제가 복잡해져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53년생** 주변에 유혹이 많은 시기입니다. **65년생**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77년생** 갈라졌던 옛 동료가 다시 찾아와서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89년생**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세요.
- 54년생** 기본전환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66년생** 이미 건너 해결된 형국으로 보입니다. **78년생** 신규 사업을 진행하다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90년생** 가족에게 더욱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 55년생** 성공이 결실을 이루는 시기에 도달할 것입니다. **67년생** 어려운 시기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79년생** 현재의 일이 가장 적합한 일입니다. **91년생** 불우한 이웃에게 덕을 베풀세요.
- 56년생** 부인은 현모양처의 기질을 발휘할 때입니다. **68년생** 즐거워 따르게 되는 운 기입니다. **80년생** 뜻밖의 활동이 가능해 집니다. **92년생** 무슨 일이나 주의와 냉철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 57년생** 성공이 결실을 이루는 때입니다. **69년생** 모든 것이 흐뭇하고 만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81년생** 현재의 상황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93년생**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마세요.
- 58년생** 큰 성공에 욕심을 부리면 크게 전략할 위험이 있습니다. **70년생** 이미 이룬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82년생** 불운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94년생** 여행을 떠나세요.
- 59년생** 지금 추진하는 일은 잘 됩니다. **71년생** 명실상부하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83년생** 주장을 내세워 분위기가 오기 쉬우니 조심하세요. **95년생** 일이 되지 않고, 자꾸 밀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회의四季

위위구조, 지혜



살다 보면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거나,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벽에 부딪힐 때가 있다.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무작정 정면 대결을 펼치려고 나선다. 하지만 병법에서는 다른 방법을 권한다. '위위구조'가 그것이다. 36계 병법의 하나인 위위구조는 위나라를 포위해 조나라를 구한다는 뜻이다. 전국시대에 위나라 공격을 받은 조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조나라는 동맹국인 제나라에 원군을 요청했고 제나라는 곧바로 군사를 파견해서 조나라를 구원하도록 했다. 그런데 제나라 원군은 조나라로 가는 대신에 위나라 수도를 포위했다. 놀란 위나라 군사는 조나라에서 물러나 허겁지겁 자기 나라를 지키러 달려갔다. 제나라는 철수하는 위나라 군사가 지나가는 길목에 복병을 숨겨놓았다가 큰 타격을 입히고 조나라로 구해냈다. 이는 정면대결을 피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우회해서 배후를 타격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응용할 만하다.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당장 눈앞의 문제에만 매달려 어쩔 줄 모른다. 그런 때는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명리학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만을 보지 않는다. 대신 그 사건이 벌어지게 한 사주의 구조와 운의 흐름을 먼저 살핀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갈등이 반복된다면, 내 사주에서 어떤 기운이 과도하게 작동하는지, 지금 어떤 운이 들어와 있는지를 본다. 명리학은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사주라는 틀을 통해 내 기질을 알고, 운의 방향을 읽으며, 어디를 먼저 움직여야 할지 판단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해준다. 병법은 정면 승부보다 전략을 갖추어서 지혜를 조합하면 흐름의 이해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고난도의 퍼즐만큼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5	2					3
	4		8	9	6	
8		5		2		1
	1					3
	6		1		4	9
2	5		4	7	9	
						6
9						5
						4

1	7		9			6
	4		8	7	6	
						3
						5
			3			6
			9	4		9
8	9				7	
8	4					
	7		6	4	8	
6				2		8
						9

7	9	8	2	9	1	8	6
1	9	8	6	7	8	9	2
6	2	8	5	1	8	7	9
8	6	2	7	8	1	9	9
9	8	9	8	6	2	1	7
8	1	7	2	9	5	6	8
9	7	1	8	9	2	1	6
2	9	9	6	8	8	7	1
8	8	6	1	7	8	9	2
7	6	8	1	2	9	8	9
8	9	1	2	8	9	8	9
8	9	1	8	7	9	6	2
2	8	9	6	8	5	7	8
1	8	6	9	8	2	7	9
9	8	7	9	6	2	1	8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7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8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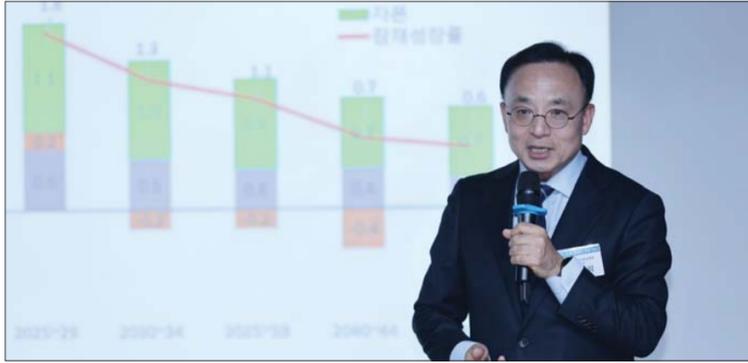
저성장·저금리 시대 진입... “투자보다 근로소득 중요”

기조강연

김영익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

올해 韓경제 2% 안팎 성장했지만 일시적 반등, 구조적 문제 그대로 오래 일할 수 있는 능력 갖춰야



24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개최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서 김영익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가 기조강연하고 있다. /메트로신문

김영익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는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과도하게 불어난 부채와 자산가격 거품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과거보다 낮은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며 “한국 경제도 단기 회복과 별개로 구조적 저성장·저금리 흐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100세 시대에는 금융자산 운용만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기 어려워지는 만큼 근로소득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준비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난 24일 메트로신문(메

트로경제)이 개최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기조강연에서 세계 경제를 먼저 ‘부채 성장의 후유증’으로 규정했다. 코로나19 충격 당시 대규모 재정·통화 부양으로 침체를 막았지만, 그 결과 선진국은 정부부채가, 신흥국은 기업부채가 크게 불어났고 한국 역시 기업·가계·정부 순으로 부채 부담이 누적됐다는 진단이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

은 2020년 마이너스 2.8%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은 뒤 2021년 6.3%로 급반등했지만, 2026년과 2027년은 각각 3.3%, 3.2%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2000~2019년 연평균 3.7%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는 여기에 미국 자산시장 고평가까지 겹쳐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채권 시장 거품은 상당 부분 꺼졌지만 주식과 주택시장에는 아직 거품이 남아 있

다”며 “세계 경제는 앞으로 5년 정도 과거 평균보다 낮은 성장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단기 반등’과 ‘구조적 둔화’를 구분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 경제는 작년 1.0% 성장에 그쳤지만 올해는 2% 안팎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이건 순환적 회복이지 구조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한국 성장률은 1.9%로, 블룸버그 컨센서스도 2.0% 수준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고 소비도 다소 회복되면서 경기 반등이 나타났지만, 수출 증가율은 1분기를 정점으로 2분기부터 서서히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본질적인 문제는 잠재성장률 하락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과거 10% 수준에서 현재 1.8% 안팎까지 떨어졌다”며 “인구 고령화와 노동·자본 증가세 둔화가 겹치면서 2040년에는 0%대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고 말

했다.

금리 전망 역시 같은 맥락이다. 김 교수는 최근 금리 반등을 일시적 현상으로 평가해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금리도 내려갈 수밖에 없고, 국내 전체적으로는 저축이 투자보다 많은 자금잉여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교수가 가장 힘줘 말한 대목은 ‘근로소득’이다. 김 교수는 2013년 2억원을 넣은 즉시연금의 월 수령액이 51만원에서 28만원으로 줄어든 사례를 들며 “한 달에 30만원을 버는 일이 금융자산 2억원이 만들어내는 현금흐름과 비슷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성장·저금리 시대에는 금융자산도 잘 굴러야 하지만, 그 못지않게 직을 오래 유지하고 또 하나의 업을 만들어 100세까지 근로소득을 얻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대에 맞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패널토론

불확실성 커진 시장... “자산 재설계해야”

늦어도 내년 상반기 경기침체 우려 가족 금융채취 비중 높아 ‘주의’

“경기침체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핵심자산으로 자금을 이동해야 한다.”

지난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서는 다양한 테데크 전략이 나왔다. ‘초고령 사회와 생산적 금융,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선 강연에 이어 패널 토론도 이어졌다.

패널 토론은 김택동 레이크투자자문 대표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영익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이

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윤종연 하나은행 Gold PB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중동사태’를 비롯해 최근 국내·외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전망과 함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영익 겸임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다가올 경기침체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익 겸임교수는 “주식시장에서 부분적으로 거품이 형성된 것 같다. AI와 관련한 논쟁이 여전히 뜨겁고, 사모펀드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유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면, 정책적인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유가가 오르면 바로 다음분기부터 물가가

오른다. 이후에는 물가가 오르는 속도는 내려가겠지만, 경제성장률이 더더욱 떨어진다. 유가상승은 시차를 두고 경기침체를 초래한다. 빠르면 올 상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침체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운영 이사장은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금융채취’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 이사장은 “금융사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불특정다수를 겨냥한 문자나 스미싱, 금융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불완전판매, 그리고 친족이나 지인이 금융자산을 마음대로 운용하는 ‘금융채취’가 그것이다”라며 “금융채취는 80~90%가 자녀에게서 발생한다. 가족이라고 해도 내 금융자산을 가로챌 수 없는 시스템



‘2026년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익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김택동 레이크투자자문 사장,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윤종연 Gold PB팀장(하나은행 Club1 도곡 PB센터지점). /메트로신문

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여신거래안심차단, 비대면계좌개설 차단 등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주식시장의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분석했다. 이 센터장은 “올해 주가가 높아진 이유는 자기자본수익률(ROE)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년 대비 5배의 수익을

내면서 코스피 전체 이익도 2배 올라갈 것”이라며 “반도체, 조선업 등 국내 주요 산업은 경기 변동성에 취약하고, 중복상장 등 기업 거버넌스 이슈도 있다. 정부가 개선 노력을 이어나가가고 있고, 기업들도 준비와 노력을 해나가는 만큼 이 부분은 시차를 두고 조금씩 개선돼 나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초고령사회 진입... 금융 구조 전환 시급”

축사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혁신기업 투자·경제성장 연결 구조 구축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있다”며 “경제의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 처장은 특히 급격한 인구 고령화 속도를 우려했다. 우리나라 중위연령은 2024년 46.1세에서 2050년 58.1세, 2072년 63.4세로 높아질 전망으로, 인구 절반이 60세를 넘는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자산구조다. 신 처장은 “자산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 편중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유동성이 낮은 자산 구조는 장수 리스크를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기대수명은 늘고 있지만 현금흐름이 부족한 구조가 노후 불안을 키운다는 설명이다.

그는 금융 구조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혁신기업 투자와 경제성장을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가치 중심 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 산업 투자 기반도 확대한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및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머니무브 시대... “자산 재편의 실마리 찾길”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불장 속 투자 전략 재정립 시점

최근에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아직 불장입니다. 어딜 가나 화제입니다. 랜덤워크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가는 술 취한 사람의 걸음걸이 처럼, 예측할 수 없게 움직인다는 내용입니다. 주식투자도 돈을 벌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제 주변에는 주식 투자로 큰 성공을 이룬 분들이 있습니다. 책을 다양하게 읽고, 생각이 깊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새로운 흐름에 관심을 갖고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보를 빨리 취척하는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미래의 파급력을 고민합니다. 작년 이맘때 코스피는 2600선이었습니다. 1년



만에 2배가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증시의 시가총액도 2800조원으로 독일과 프랑스를 제쳤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230조원의 수익을 거둬며 고갈 시기가 8년 늦춰졌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소액주주가 많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국민주의 상승은 증산층에게도 도움이 됐습니다.

1년 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상법개정으로 대주주의 과도한 이익추구를 막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부동산을 누르고 증시를 키우려는 정부의 정책방향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머니 무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야말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재편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포럼이 여러분께 부자가 되는 길을 안내하고, 포트폴리오 재편의 해법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승진 기자



백화점
체험형 세일
승부수
니



Life

K-뷰티
헤어케어 시장까지
복미서 존재감↑
L2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2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VIP 티타임에서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연 하나은행 Club1도곡 PB센터지점 Gold PB 팀장, 정만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고승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회장(전 금융위원장),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영익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택동레이크투자자문 사장. /최규춘 기자 ch9720@

“전례 없는 반도체 호황… 코스피 6000 온다”

강연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D램 가격 급증·AI 기술변화 등 성장요인

“올해는 반도체 유프사이클이 될 것 같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 전례 없는 기회가 오고 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난 24일 '2026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을 주제로 반도체 유프사이클에 기반한 한국 증시 상승을 전망했다. 유가 급등과 사모대출 펀드 리스크, 인공지능(AI) 거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전쟁 변수를 제외하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먼저 이 센터장은 반도체 호황의 근거로 가격 변화 추이를 짚었다. 특히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D램 가격이 주목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D램 가격지수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년 사이 37배 이상 급증했다.

그는 “현재 삼성전자의 일부 제품은 영업이익률이 97%에 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반도



체 업황은 한국 경제와 증시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만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성장을 이끌 요인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 변화도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기존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심의 트랜스포머 기반 AI 모델이 한계를 보이면서, 메모리 구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포스트트랜스포머’ 기술이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호황을 바탕으로 증시 상승 여력도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이 올해 약 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스피 연평균 지수는 5900~6000포인트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반도체 외 투자 대안으로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 산업주도 언급했다. 이 센터장은 “ETF나 또는 증권사들이 추천해 주는 쪽에서 흔히 말하면서 PBR이 낮은 기업들 법적으로 포지션을 잡는 것도 한 가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선진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부동산 투자, 가격상승보다 현금흐름에 초점”

강연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노후설계, 부동산-자산 50대50 균형 맞춰야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가격보다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인지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2026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부동산 시장은 공간·세대·노후설계의 변화가 맞물리며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먼저 공간 트렌드의 변화다. 그는 기후재난을 중요한 변수로 꼽으며 이상기후가 도심 쏠림 현상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 전원주택을 꿈꿨다면 이제 안전과 관리 측면에서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된다는 것이다.

세대 변화도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으로 제시됐다. 박 위원은 30대 고소득 맞벌이 부부를 ‘es sayer(선도자)’로 규정하며 시장을 이끄는 주체로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30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맞벌이 비중 증가가 있



다”면서 “30대 맞벌이 부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주택 구매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당, 용인 수지, 한강변 등 주요 지역 집값 상승 역시 투기 수요도 있지만 출퇴근 시간을 줄이려는

타임푸어 수요와 맞물린 결과라고 해석했다. 고령자가 세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자산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도 짚었다. 박 위원은 이번 양도세 증가로 중심지역이 먼저 하락한 ‘코어 디스카운트’ 현상을 언급하며 “고령자들이 현금 흐름 제약 때문에 주택 수를 줄이거나 ‘다운사이징’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강연의 핵심은 노후설계 전략이었다. 그는 “노후설계의 핵심은 캐시플로우(현금흐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라며 “가격 상승보다 안정적인 현금흐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위원은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 자산과 50대 50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자산은 많지만 현금이 부족한 ‘벤드리치 캐시푸어’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성채리 기자 cr56@

“금융대전환 시대… 유행 아닌 원칙투자 중요”

강연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단기 테마주 지양… 장기·분산투자 ‘주효전략’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금융정책을 알면 불안이 줄고 선택이 선명해진다. 금융대전환의 시대에 내 삶을 바꾸는 것은 정책 그 자체가 아닌 소비자의 판단력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2026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정부 정책의 핵심 방향과 내 자산관리의 기준'을 주제로 강연했다. ‘금융대전환’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성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의 시대에 필요한 금융 원칙을 제시했다.

정운영 이사장은 “생산적금융은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첨단산업으로 이동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라면서 “단기 테마주를 쫓기보다는 수익모델이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장기투자와 분산투자가 주요한 투자 전략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포용적금융은 예측하지 못한 실업이나 금융사기,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재기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면서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고, 우리 주변에도

포용적금융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는 만큼 여러 제도에 대해 파악하고, 나에게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운영 이사장은 금융대전환 시대를 위한 ‘금융생활 체크리스트’를 제안했다. ▲은퇴 전·후의 현금흐름을 파악해 고정비용을 조정할 것 ▲부채 변동금리 비율을 파악해 부담의 범위를 파악할 것 ▲부동산이나 주식 등 특정 자산에 위험이 편중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것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한 의료비 보장이 충분한지 파악할 것 등의 내용이다.

정 이사장은 “유행이 아닌 원칙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라면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기업에 투자하지 말고,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상 생활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생활비를 확보해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선진 기자 asj1231@

“수익보다 생존… 꾸준한 수익구조 만들어야”

강연

윤종연 하나은행 Gold PB 팀장

현금흐름 중요… 분산투자, 절세로 자산 지켜야

윤종연 하나은행 Club1도곡 PB센터지점 Gold PB 팀장은 최근 시장을 “수익보다 생존이 중요한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환율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는 환경에서는 과거와 같은 자산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현금흐름을 중심으로 한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윤 팀장은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강연에서 고액자산가들의 투자에서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채권과 예금 등 안정형 자산 비중을 확대하고 현금성 자산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가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유동성 자체가 하나의 ‘방어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현금흐름’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



조했다. 단순한 자산 규모보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장기적인 안정성을 좌우한다는 판단에서다. 윤 팀장은 “부자들은 자산가치 상승에만 기대지 않는다”며 “배당, 이자, 임대수익 등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투자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시장이 과열되거나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를 지양하고, 반대로 과도한 조정이 나타날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타이밍을 맞추기보다는 구간을 나눠 대응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절세와 분산 역시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자산군뿐 아니라 통화, 지역, 투자 상품을 분산해 특정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낮추고, 세후 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 판단을 내리는 방식이 고액자산가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변동성 국면에서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 전략에 가깝다는 평가다. /나유리 기자 yu115@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1982



금융보국
금융으로 나라를 이롭게 한다

나라를 위한 은행

대중의 은행

서로 돕는 은행

믿음직한 은행

가장 편리한 은행

세계 속의 은행

젊은 세대의 은행

신한의 창업이념,
포용금융으로
이어지다

2026